



월 간

충/남/경/제

Chungnam Economic Trends

September
2013.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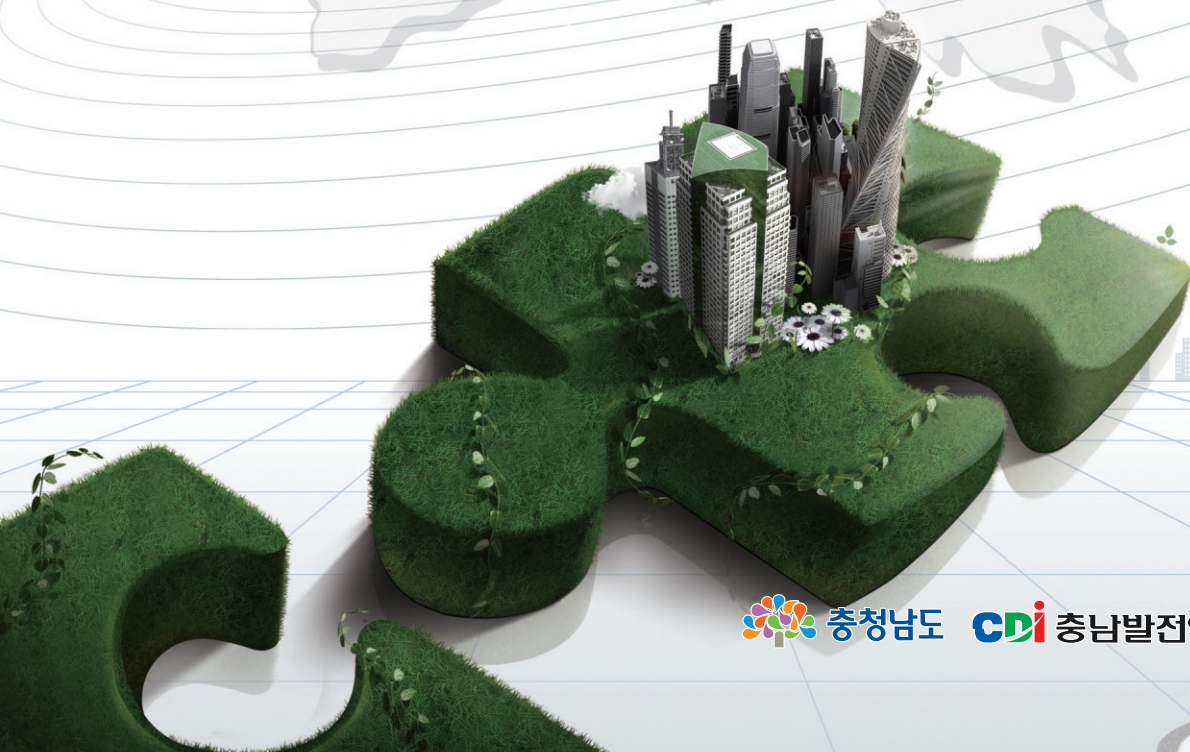
ISSUE 충남 비정규직 실태와 정규직 전환

충남지역 청년층 노동시장 구조와 변화

경제동향 경기, 산업활동, 소비 및 물가, 수출입, 고용, 금융, 건설 및 부동산

경제일지

경제지표



충청남도



충남발전연구원

2013년 9월호

발 행 인 안희정 · 강현수

편집위원장 최운현 · 정종관

편집위원 오세현, 백운성

집 필 진 총괄 임형빈

경제동향 임재영, 김양중, 김혜정, 이윤경

경제일지 윤찬수, 이초희

발 행 처 충청남도 · 충남발전연구원

주 소 314-140 충청남도 공주시 금흥동 101번지

연 락 처 (041) 840-1165 팩스(041) 840-1129

월간 충남경제의 파일은 충청남도(<http://www.chungnam.net>)와

충남발전연구원(<http://www.cdi.re.kr>)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ISSN 2093-0844



Chungnam Economic Trends

CONTENTS

ISSUE	충남 비정규직 실태와 정규직 전환	3
	충남지역 청년층 노동시장 구조와 변화	12

경제동향	충남경제동향 (요약)	23
-------------	-------------	----

- | | |
|------------|-------------|
| 1. 경기 | 5. 고용 |
| 2. 산업활동 | 6. 금융 |
| 3. 소비 · 물가 | 7. 건설 · 부동산 |
| 4. 수출입 | |

해외경제동향 (요약)	42
-------------	----

- | | |
|-------|---------|
| 1. 미국 | 3. 일본 |
| 2. 중국 | 4. 유로지역 |

경제일지	충남경제일지	49
-------------	--------	----

경제지표	1. 국내 주요경제지표	63
	2. 충남 주요경제지표	65
	3. 충남 부문별 경제지표	67

부록	1. 충청남도 경제지원시책	83
	2. 알기쉬운 경제용어 해설	84
	3. 월간 충남경제 원고 게재 목록	86



Chungnam Economic Trends

ISSUE



충남의 비정규직 실태와 정규직 전환

임 병 철 | 충남발전연구원 지역경제연구부 연구원

1.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 하에 고용 안정보다 유연화와 일자리확대에 초점을 둔 현 정부의 고용정책에 있어서, 최근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계획(2013.9.5)’은 다양한 논란과 함께 새로운 이슈가 되고 있음
 - 계획에 따르면, 2015년까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 6만 5천여 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고, ‘무기계약직 관리규정 표준안’을 마련하여 공정한 절차와 기준을 제시할 계획임
 - 그러나 정규직과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에 대한 해결 없이 ‘무기한 비정규직’만을 양산할 뿐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으며, 차별적인 임금 체계와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새로운 정규직 모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또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비율보다 과학기술계 출연연구원의 비정규직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대책은 하반기까지 별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 정책 추진 이전에 해고 등으로 비정규직 비율을 줄이기 위한 시간벌기라는 의견도 있음
-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노력이 민간부문에까지 확산되고,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간다면,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음
-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에서는 ‘한국경제의 지속·포용 성장 보고서(2012.10.22)’에서 우리나라가 가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가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서가 발표되었음

- 구체적으로는 비정규직 차별이 없다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10년간 매년 평균 1.1%씩 늘어난다고 제시함
-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고 공공보육과 직업교육에 대한 재정 지출을 확대하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져 경제 활력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제시함
- 그러나 대부분의 비정규직이 대기업이 아닌 영세 중소기업에서 근로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정규직 전환을 위해 필요한 자원마련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민간부문의 참여가 적극적일 수 없을 것임
- 이러한 상황은 충남에서도 다르지 않으며, 이를 위해 충남은 지역 내 비정규직의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부의 정책과 함께 관련 연구를 바탕으로 충남의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2. 비정규직 실태와 문제점

1) 비정규직 정의 및 현황

- 일반적으로 정규직이 아닌 근로자를 비정규직 근로자로 부르며,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 전일제가 아닌 파트타임근로자, 고용과 사용이 분리되는 파견근로자를 의미함¹⁾
 - 정규직은 일반적으로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고, 전일제로 근무하며, 고용과 사용이 분리되지 않은 근로자를 의미함
- 노동계에서는 비정규직 범위를 경제활동인구 본조사상의 임시/일용직 근로자와 상용직 근로자 중 부가조사상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합한 것으로 파악, 반면 정부는

1) 기간제근로자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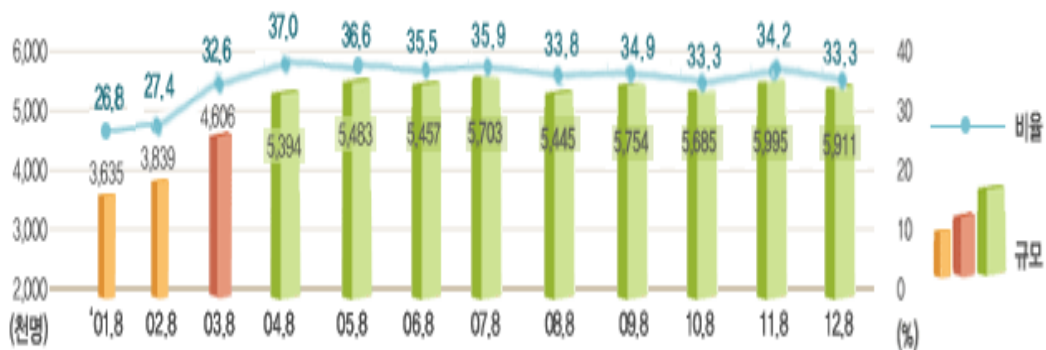
단시간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파트타임근로자)

파견근로자 :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의 대상이 되는 자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2002.7)한 바에 따라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근로자만을 포함함²⁾

- 국제적으로 통일된 비정규직 개념은 없으나, OECD에서는 임시직근로자(temporary worker)로 구분하고 있으며, 임시직근로자에는 유기계약근로자(worker with fixed term contract), 파견근로자(temporary agency worker), 계절근로자(seasonal worker), 호출근로자(on-call worker)를 포함
- 정부의 비정규직 구분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2012년 8월 기준 5,911천명으로, 전체 근로자 중 33.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체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2004년 37.0%에 비해 2012년 33.3%로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규모는 증가하고 있음
 - 결과적으로, 전체 근로자 10명 중 3-4명이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점은 변하지 않고 있음

연도별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 및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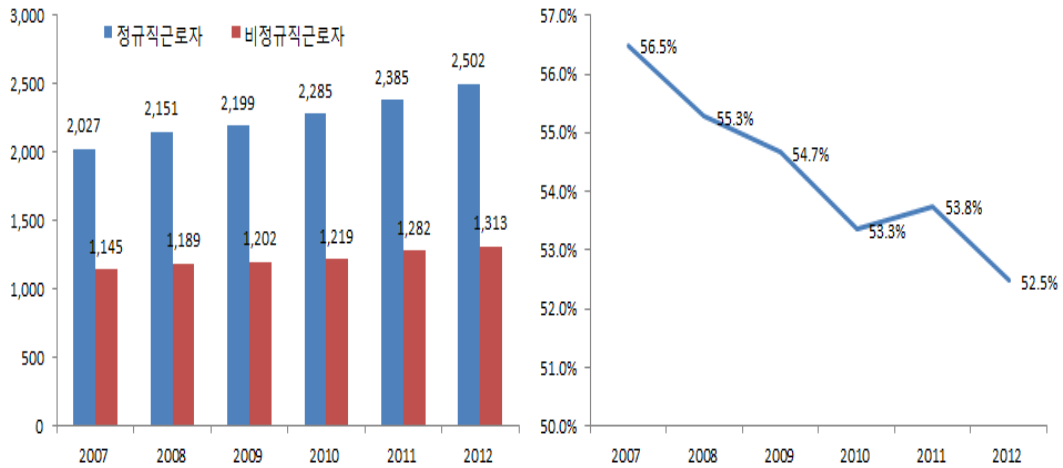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은 정규직에 비해 증가폭이 낮으며, 2007년 정규직의 56.5%에서 2012년 52.5%로 낮아지고 있음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커지고 있음을 의미함³⁾
 - 실질적으로는 임금뿐 만 아니라 다양한 복지 혜택에 있어서도 차별을 받기 때문에 양극화와 같은 사회적 갈등의 우려가 있음

²⁾ 고용노동부(www.moel.go.kr) 정책홈페이지, 비정규직 개념과 유형

³⁾ 그러나 동일임금, 동일노동이라는 관점에서 보기는 어려우며, 이를 위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연구와 분석이 필요할 것임

연도별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수준(천원, %)



자료: 통계청,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월급여액

2) 비정규직 보호법

- 비정규직 보호법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을 통칭하는 것이며, 기간제와 단시간, 파견 근로자에 대한 보호법을 의미함
 - 주요 내용으로는 사용(파견)제한, 차별금지, 차별시정 등이 해당되며, 일반적으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됨
 - 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적용됨
- 비정규직 보호법에 따라 비정규직의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그러나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벗어나, 2년 이하의 고용만 보장되는 한시적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음
- 고용노동부가 2010년 4월부터 2012년 4월까지 기간제 근로자 2만명을 대상으로 노동이동과 근로조건 변화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고용형태별 근로자패널 1-8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절반이 넘는 52.7%의 기간제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실직한 것으로 나타남

- 이직자들 중 재취업자는 69.4%로 나타났으며, 17.9%는 육아나 가사 등을 이유로 경제 활동을 포기, 12.8%는 실업자가 된 것으로 조사됨
 - 실업자 중 53.2%는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실직한 것으로 나타남
 - 이직자들 중 38.7%는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직장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이직자 10명 중 4명이 해고됨을 의미함
- 그러나, 동일 사업체에 지속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법 적용자 중 86.1%는 정규직 전환 또는 무기계약 간주자로 나타남
- 기존 직장에 이직 없이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10명중 8-9명이 고용 안정 차원에서 혜택을 보고 있음을 의미함
 - 이는 사회보험 가입률이 늘어난 점에서도 간접적으로 나타나고 있음⁴⁾

3)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비정규직의 현황과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제시된 바와 같이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과 고용의 질 개선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또 다른 문제점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임
- 대부분의 비정규직은 영세 중소기업에 근로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대기업이 모범을 보여도,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서는 실천하기 어려움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추가적인 재원 부담은 결과적으로 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함
 - 정규직화를 위한 비용 지출은 신규 고용 규모를 줄이게 되며, 노동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대졸, 고졸자들의 취업기회를 줄이게 됨
-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정규직, 비정규직)에 대해 발표한 OECD(2009)의 연구 결과에서도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 수준을 높이는 정부 정책은 오히려 고용을 축소시킬 수 있음을 제시하고,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를 완화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⁴⁾ 고용보험 가입률 50.8% → 58.1%, 건강보험 65.5% → 73.3%, 국민연금 54.2% → 7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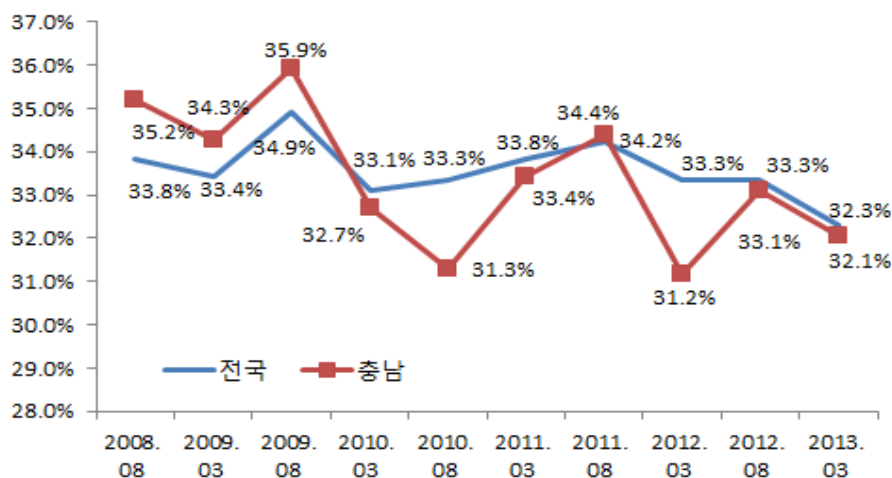
- 따라서, 정부 정책을 통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은 지속적인 대안이 될 수 없으며,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을 줄여, 개개인이 근무시간과 형태를 보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고용문화가 정착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

3. 충남의 비정규직 실태와 정책

1) 비정규직 현황

- 고용노동부가 매년 3월, 8월에 실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충남의 전체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2013년 3월 기준으로 32.1%로 나타남
- 2010년 3월 이후 충남은 비교적 전국보다 비정규직 비율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증감을 반복하는 경향을 보임

충남 전체 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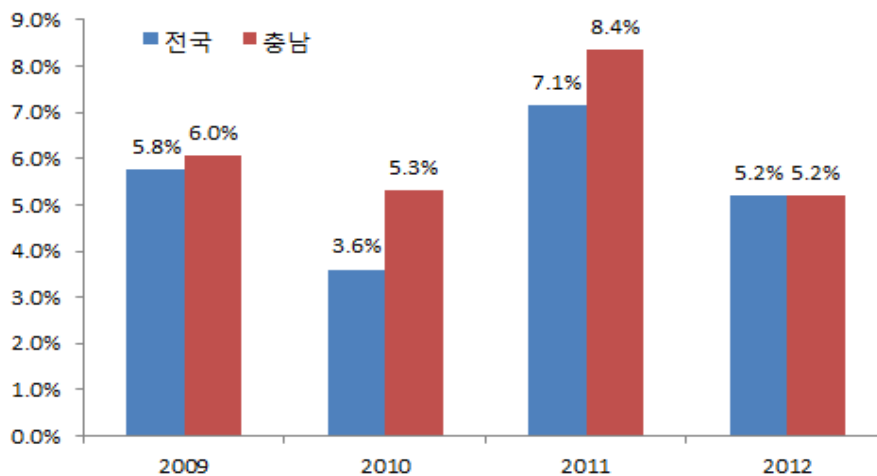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시도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

- 중소기업청에서도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통해,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비율을 추정하여 결과를 발표하고 있음
- 충남 제조업 사업체 중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비율은 전국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

- 타났으나, 2012년은 5.2%로 전국과 같았음
- 충남 지역 내 제조업 부문의 중소기업들은 전국평균에 비해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충남 전체산업의 비정규직 비율은 33.3%(2012년)로, 이 결과와 비교하여 제조업 부문의 비율이 낮은 것은, 비정규직 고용이 제조업보다 서비스 업에서 주로 나타남을 간접적으로 제시함

충남 제조업 사업체 중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



자료: 통계청, 중소기업 실태조사 고용유형별 현 인원

- 제시된 두 가지 조사결과는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에 따른 추정치로, 실제와 오차가 있을 수 있으나, 충남의 비정규직 비율이 전국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산업에 따라 비정규직 비율 차이가 나타남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

2) 충남의 비정규직 정책

- 충남은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위한 대책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대책’을 수립(2012.1.4) 시행하고 있음
 - 충남은 공공부문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고용안정성을 보장하려는 취지와 함께 실질적인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주요사항으로는 월급제 및 호봉제 시행,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

보조수당 신설, 명절휴가비 상향 조정, 등이며, 급량비 상향 조정, 직무교육 시행 등 불합리한 차별 부분도 개선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규정을 개정하고, 제도를 정비하는 등의 행정적인 절차와 함께 중앙정부에 특별법 제정과 비정규직 총액인건비 한도액 상향 조정 등을 건의함
 - 이러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고용개선이 도 산하기관 및 시군 비정규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민간부문으로 확산되도록 경영계 및 노동계와 협조, 설득의 노력을 병행함
- 충청남도 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연구모임을 통해 ‘충청남도 시군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토론회(2013.9.10)’를 개최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금지 및 처우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음
-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충청남도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안’을 도의회에 상정할 예정임
 - 조례안에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지원, 전담부서 설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및 처우개선이 주요 내용이 될 것임

3) 향후 추진방향 제언

- 충남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종합대책 마련과 시행, 관련 조례안 준비 등 비교적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충남 지역 내 민간부문의 움직임은 미약한 실정임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노력을 민간부문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현황, 실태조사에 근거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함
 - 전체 근로자의 1/3이 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기업에 많은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으며, 이는 곧 경제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 또한, 비정규직 차별 문제에 따른, 노사간, 노노간 갈등은 사회적 갈등으로까지 확산되어 우리 경제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따라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경제적으로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고, 이들 문제점들이 경제 주체에 어떤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가능하다면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해야 할 것임

- 지역이 가진 산업 및 고용구조, 관련 정책 등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지역별 경제 효과를 비교분석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임
- 충남 지역 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실태조사가 선행되고, 보다 구체적인 분석과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민간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임

참고문헌

고용노동부 외(2013), 2013~2015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계획

고용노동부(2013),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주요 결과(1~8차)

충남도청(2012),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대책

OECD(2009),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Sustaining growth in Korea by reforming the labour market and improving the education system"

IMF(2012), IMF Working Paper, "Social Spending in Korea: Can it Foster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충남도청 홈페이지(<http://www.chungnam.net>).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

한국노동연구원(<http://www.kli.re.kr>)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충남지역 청년층 노동시장 구조와 변화

김 혜 정 | 충남발전연구원 경제교육센터 연구원

1. 들어가며

- 최근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큰 산으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 악화는 비단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의 문제이기도 함
- 청년층¹⁾이 근로생애 시작 시기에 경험하는 실업 또는 장기 미취업의 부정적인 영향은 노동시장 참여 기간을 단축하고 낮은 임금에서 일할 확률을 높이는 등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취업에 대한 불안감과 좌절감 등 심리적 측면으로도 악화되는 실정임
 - 노동력의 유희화²⁾는 기존의 인적자본을 감가상각
 - 근로경험을 통한 인적자본축적의 기회를 상실
 - 노동시장 숙련도 등으로 인해 노동시장 정착도가 저하되고 이는 다시 노동력의 유희화 지속하는 악순환이 발생함
 - 늘어가는 취업 준비 기간과 불안심리, 좌절감으로 인한 실망노동자 효과³⁾ 발생
- 이러한 청년층 노동시장의 악화 원인으로는 대표적으로 거시경제적 여건 악화와 청년 노동시장에서 임금결정제도의 차이, 숙련편의적인 기술변화, 노동시장의 이

1) 청년층의 정의 : 일반적으로 OECD와 UN등 국제기구에서 적용되는 청년실업률의 기준은 15~24세이며 지난 일주일 간 구직활동을 한 사람의 비율이나 우리나라는 남성의 군복무 등을 감안해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인 15~29세로 정의함

2) 이용 가능한 노동력이 사용되지 않고 묵혀지는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흔히 결혼 등으로 경력단절된 여성 등이 일을 하지 않는 상태의 지속을 말함

3) 구직활동 중 탐색비용, 채용시까지 기다려야 하는 시간 때문에 취업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구직활동을 포기하는 것 즉, 현재의 임금에서 일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는 경기가 후퇴할 때 많이 나타나는 현상으로 일부 구직자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됨에 따라 실업률이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남. 이와 반대되는 현상으로 경기가 후퇴할 때 가구주 외의 가구원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때는 비경제활동인구가 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됨에 따라 실업률을 높이는 현상을 나타내기도 함(부가노동자 효과)

중구조 등 여러 가지 가설이 존재함⁴⁾

- 거시경제적 여건 악화 : 청년 실업이 다른 계층에 비해 경기에 탄력적임
 - 청년 노동시장에서 임금결정제도의 차이 : 최저임금제와 단체교섭 등으로 임금이 상대적으로 상승함
 - 숙련편의적인 기술변화 : 비숙련근로자가 다수인 청년층의 구조적 실업 발생
 -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 고용형태 다양화로 심리적 불안감 조성
 - 노동시장 이행지원제도의 차이 : 노동시장과 교육간의 연계 강화 정도에 의한 차이
- 허나 지금의 청년층 노동시장은 어느 한 가지 요인이 아니라 급격하게 변화하는 경기변동을 사회가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과 더불어 청년층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 노동시장 이행 장기화, 취업 형태의 불안정성이 복합되어 나타나고 현상임
-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이후 본격적으로 청년층 취업난을 겪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경제가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는 모습을 보임
- 청년층의 취업과 실업, 비경제활동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보고 이러한 추이들이 안정적으로 지속된 것인지,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파악하고자 함

2. GRDP와 취업자수로 바라본 충남지역 노동시장의 변화

1) 경제성장과 연령별 취업자수

- '90년대 중반까지 연령별 취업자수의 변화는 크지 않았으나 '97년을 기점으로 청년층은 감소하고, 중장년층의 취업자수는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남
- 청년층 취업자수를 나타내는 15세~29세를 보면 1990년 중후반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여 경제 회복세보다도 더 더딘 모습을 나타냄
 - ※ (청년층) '91년 181천명 → '97년 189 → '03년 227천명 → '09년 138천명 → '12년 162천명
 - 반면, 상대적으로 중·장년층의 취업자수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 ※ (40세~49세) '91년 167천명 → '97년 181천명 → '03년 227천명 → '09년 253천명 → '12년 264천명

4) 한국노동연구원(2003), 청년층 노동시장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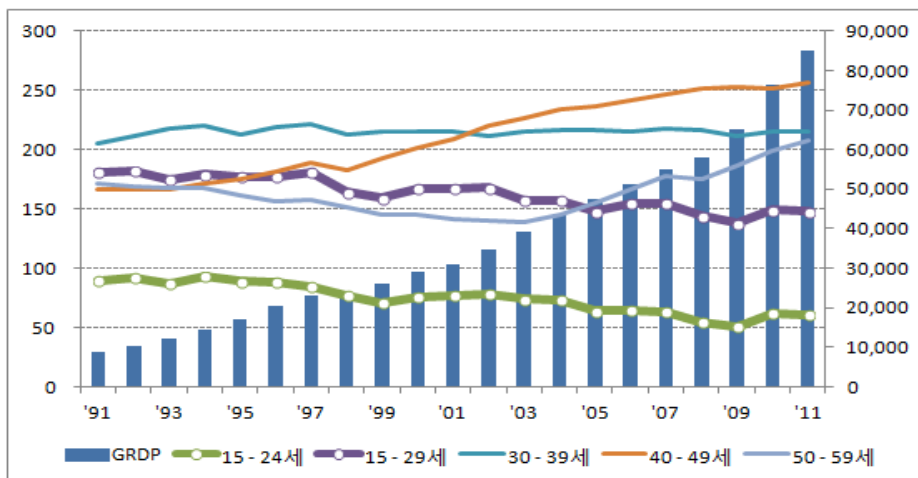
- 위의 논의를 연장하여 경제성장과 취업자수의 관계를 살펴보면, '97년 외환위기는 내부적 요인에 의한 충격으로 위축된 경제회복 이후 서서히 취업자수가 증가하였다면 '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외부적 요인에 의한 충격으로 경제회복과 취업자수가 빠르게 회복되었다는 차이는 있으나 두 번의 충격이 취업자수의 구조에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보여짐
 - 내부요인에 의한 충격인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하락한 GRDP와 취업자수는 다소 느린 회복을 보임
 - 이는 외환위기 당시 신규채용이 줄어든 것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구조조정이 쉽고, 선입후출의 원리에 의해 젊은층이 미취업 상태에 오래 지속되거나 실업이 대거 나타났기 때문으로 생각됨

2) 전국과 충남지역 연령별 취업자수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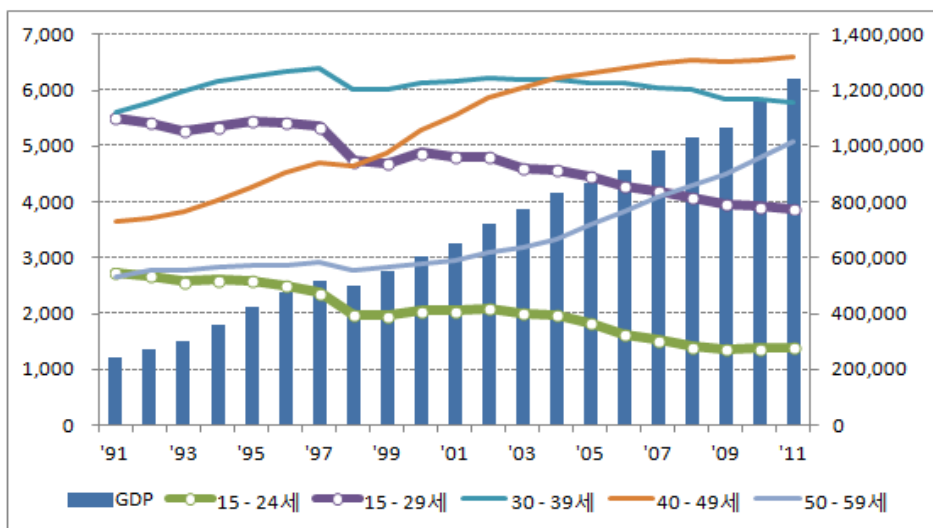
- 전국과 충남지역의 비교한 결과, 중·장년층의 노동시장은 비슷한 양상을 보이지만 청년층 노동시장은 최근 들어 차이를 보이고 있음
 - 그림에서 보여 지듯이 전국과 달리 충남지역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청년층 취업자수가 증가세로 반전됨
 - ※ (전국 청년층, 단위: 천명) '07년 4,202 → '08년 4,084 → '09년 3,957 → '10년 3,914 → '11년 3,879
- 충남의 노동시장은 공통적으로 경제의 충격이 가해진 시점에서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경기가 회복되면 함께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므로 상대적으로 전국보다는 경제성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짐
 - 충남의 연령별 취업자수를 보면,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시점에 위축되었다가 회복되는 모습
 - 전국은 외환위기 이후 청년층 취업자수는 감소하고 중·장년층 취업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이 미미하게 나타남
 - 이는 우리나라 전체의 노동시장 구조가 외환위기 이후 청년층은 감소세, 중·장년층은 증가세라는 모습으로 고착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임

<그림> 경제성장과 연령별 취업자 현황(단위 : 십억원, 천명)

[충 남]



[전 국]



- 이러한 현상은 각 연령별 취업자수와 경제성장간의 상관관계 분석에서 좀 더 명확하게 나타나는데 청년층에서는 음의 상관관계, 중·장년층에서는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남
- 15세~29세 미만의 연령층에서는 -0.898의 높은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40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0.953의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형성하며 아주 상이한 모습이 나타남

- 또한 청년층의 음의 상관관계는 최근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청년층 노동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악화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줌
- 다만 전국과 비교했을 때, 충남지역의 청년층 취업자수와 경제성장간의 음의 상관관계가 상대적으로 나은 모습을 나타냄

〈표〉 경제성장과 연령별 취업자수의 상관관계 분석

		15-24세	1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전국	GDP	-0.953	-0.957	-0.128	0.964	0.932
충남	GRDP	-0.898	-0.886	0.066	0.953	0.578

3. 충남지역 청년층의 경제활동상태 추이 변화

- 최근의 충남지역 청년층의 경제활동상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최근 10여년의 시계열 데이터를 살펴봄
 - 경제활동상태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자료로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보았음
- (취업자) 최근 10여년 간의 충남의 청년층 취업자 비중은 '00년 이후 17%~18%를 보였으나 '08년 이후 14%로 하락하였고 최근 15.3%('12년)로 증가하였음
 - 청년층의 노동시장 비중이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대학을 졸업하고 본격적인 노동시장 진입이 시작되는 시기인 25세~29세 청년층의 노동시장 비중은 최근까지도 감소하는 모습
 - ※ (24세~29세) '00년 10.2% → '05년 8.9% → '11년 8.7% → '12년 8.6%
 - 대학진학이 보편화된 시점에서 24세~29세 청년층의 취업자수가 15세~29세 취업자수보다 청년층의 현실을 더 잘 반영한다고 봤을 때 충남의 청년층 노동시장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다만, 15세~29세 청년층 취업자수의 비중이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을 장려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충남에서 더 활발하게 일어난 것으로 생각됨

○ (실업자) 충남지역의 청년층 실업률은 약 6~9% 범위에 존재하고, '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점에 가장 높은 9%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실업률은 감소하는 모습을 보임

○ (비경제활동인구) 15세~29세까지 청년층은 학생, 군인 등 비경활인구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최근 20세~24세 청년층을 중심으로 그 비중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현상은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음을 반영을 함

- 최근 위기인 '08~'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의 비경활인구가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노동시장에서 실망한 근로자들이 노동시장 참여를 포기함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보여짐

※ (20세~24세) '00년 45천명 → '06년 35천명 → '09년 43천명 → '12년 45천명

- 즉, '08년 당시 실업률이 실제 실업률은 더 높았을 것으로 생각되나 근로자들이 비경제활동인구로 빠져나감으로 인해 실망노동자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됨

- 실망노동자 효과로 인한 청년층 노동의 유희화는 인적자본 축적의 기회를 박탈하고 기존의 인적자본까지 감가상각하는 인적자본의 왜곡을 발생시킴

〈표〉 충남지역 청년층의 경제활동상태 추이 변화(단위: 천명, (비중%))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취업자	168 (0.93)	157 (0.92)	157 (0.93)	148 (0.93)	155 (0.94)	155 (0.95)	144 (0.94)	138 (0.92)	149 (0.93)	148 (0.93)	162 (0.95)
실업자	13 (0.08)	13 (0.08)	11 (0.07)	12 (0.08)	10 (0.06)	9 (0.06)	9 (0.06)	12 (0.09)	11 (0.07)	11 (0.07)	9 (0.06)
비경활 인구	193 (0.52)	185 (0.52)	174 (0.51)	177 (0.53)	179 (0.52)	184 (0.53)	196 (0.56)	200 (0.57)	191 (0.54)	193 (0.55)	205 (0.55)

주1) 취업자 비중은 $\frac{\text{취업자}}{\text{경제활동인구(취업자 + 실업자)}}$ 이고,

비경활인구 비중은 $\frac{\text{비경활인구}}{\text{취업자 + 실업자 + 비경활인구}}$

주2)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최근 충남지역 청년층의 경제활동상태 추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20세부터 5세 기준으로 살펴보았음

- 지난해를 기준으로 각 연령별 경제활동인구를 보면, 경제활동인구에서 취업률과 실업률은 20세~24세를 제외하고는 비슷한 모습을 보임
- 다만, 위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청년층에서 높게 나타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대학을 갓 졸업한 나이에서 실업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20세~24세) 이는 직업이행과정에서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의증임금과 시장임금의 차이 등 마찰이 존재함을 의미함

- 학교의 중도포기, 노동 수요와 공급사이의 미스매치, 근로자들의 눈높이 조절 등이 주 원인으로 생각되며, 25세~29세 실업비중이 낮아지는 것에 비추어 시간이 지나면서 완화된 모습을 보여줌

○ 연령별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을 보면, 학업과 군대 등으로 인해 20대 초반에 높게 나타나고 있고 25세~39세까지는 약 4명 중 한명이 노동시장 참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 U자형의 모습으로 25세 이상 청년층과 60세 이상 노년층의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이 현상은 1990년대 이후 경제의 불안정성과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로 인해 직업을 갖지 못하고 포기하는 일명 무업자(neet)⁵⁾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30세 이후의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는 여성의 출산 등의 이유로 구직활동에서 퇴장하면서 나타나는 영향이 일부 적용될 수 있으나 20대 청년층의 비경제활동인구 증가는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음

※ 노동시장에서 청년무업자(NEET)의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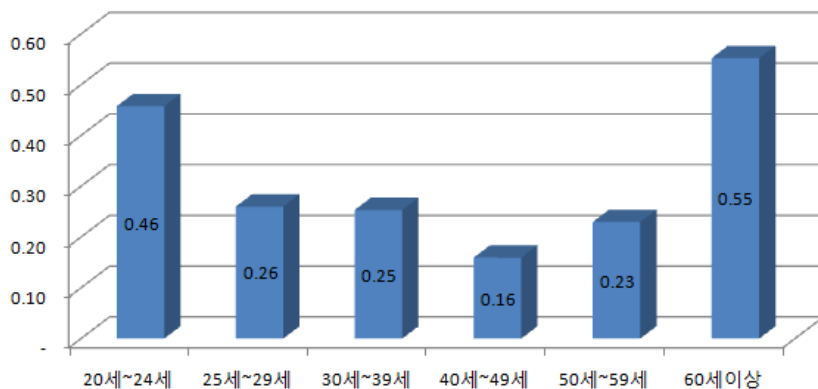
- 취업률과 실업률의 하락 : 특히, 실망노동자로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어 낮은 실업률은 노동시장의 본 모습을 감추고 밝은 미래를 예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함
- 청년무업자 문제는 노동시장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위로 인식되고 있으나 오랜 기간 지속되는 경우 사회적 문제가 됨
- 이러한 지표상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취업률과 더불어 고용률을 고려해야 함

5) 나라에서 정한 의무교육을 마친 뒤에도 진학이나 취직을 하지 않으면서도, 직업훈련도 받지 않는 집단을 가리킴. Not currently engaged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두문자어임. 니트족이라는 말은 영국정부가 1999년에 작성한 조사보고서에서 유래된 말로 블레어 정권의 정책 슬로건의 하나이기도 함

〈표〉 2012년 연령별 취업률과 실업률

	20세~24세	25세~29세	30세~39세	40세~49세	50세~59세	60세이상
취업률	0.94	0.97	0.98	0.98	0.98	0.98
실업률	0.06	0.03	0.02	0.02	0.02	0.02

〈그림〉 각 연령별 비경제활동인구 비중



4. 정책적 제언

- 충남의 청년층 노동시장은 전국에 비해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경기와 상반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경기회복에 따른 노동시장 활성화만을 바라볼 순 없음.
 - 이는 노동시장에서의 정책적 참여가 필요한 이유를 역설함
- 충남의 청년층 노동수요 요인 지원 정책 마련
 - 정부의 청년고용대책은 주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공급 및 인프라 구축 측면에 치우쳐 있음.
 - 청년고용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노동수요 측면의 정책발굴이 필요함
 - 예를 들어, 지역의 청년고용에 특화된 업종별, 직종별, 직무별 수요 예측
- 충남의 청년층 일자리의 질적 요인 강화
 -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인 청년층의 역외 유출 문제를 공급측면이 아닌 수요측면에서 접

근할 필요성 대두

- 유능한 인재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지원 대책으로 시장논리에 의한 자연스러운 경쟁이 필요
- 이를 위해서 질적으로 우수한 일자리 창출, 지역의 일자리 정보 제공 등이 중요함. 물론 현재 지역맞춤형 인재 육성, 취업박람회 등을 통해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지만 좀 더 세밀한 노력이 필요.
- 실제로 대구광역시의 스타기업 육성사업과 같은 프로젝트급 지원책뿐만 아니라 큰 규모의 행사위주 사업이 아닌 대학생들과 기업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발로 뛰는 정보 제공(대학교내 관련전공 강의실 앞에 기업 정보 부스 설치 등 실질적인 기업 정보의 제공) 등을 시행함으로써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를 꾀하고 있음

○ 또한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현상 등의 마찰요인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량적 성과보다는 정성적 성과에 기반한 사업이 필요함을 완화할 수 있음

- 현재 노동시장에서는 일부 직종에서의 고임금으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임(의중임금의 상승요인). 이러한 박탈감은 노동시장에서 임금 미스매치 현상을 발생시키고 이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노동시장 이탈이 빈번하게 나타남.
- 금전적 요인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심리적인 요인을 고려한 직종별 이점을 부각시키거나 개별주체와 기업간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교류의 장 마련

참고문헌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7), 대졸여성 청년층 노동시장 구조파악과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2003), 청년층 노동시장 분석
 대구광역시(2013),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계획
 국가통계 홈페이지(<http://kosis.kr>)



Chungnam Economic Trends

경제동향



시도별 주요 경제지표

구분	산업활동(계절조정)(7월)			소비(7월)	물가(8월)		대외거래(8월)		고용(8월)		
	생산 지수	출하 지수	재고 지수	대형소매점 판매지수 (불변지수)	생활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수출액 (백만달러)	수입액 (백만달러)	경제활동 인구 (천명)	취업자 (천명)	실업률 (%)
전국	105.5	105.4	123.7	103.1	106.8	107.7	46,378	41,525	26,074	25,291	3.0
서울	93.3	100.2	107.0	103.5	106.6	108.0	5,028	10,746	5,294	5,093	3.8
부산	102.6	97.6	143.1	97.1	108.2	108.5	1,079	1,100	1,701	1,637	3.8
대구	113.0	116.8	152.9	110.7	108.4	108.5	528	286	1,224	1,184	3.2
인천	104.6	106.3	134.4	97.9	105.7	106.6	2,116	3,381	1,519	1,458	4.0
광주	101.5	101.2	111.4	87.9	106.6	107.4	1,211	389	726	708	2.5
대전	108.9	107.1	107.0	99.2	106.9	107.8	309	268	754	736	2.4
울산	112.2	109.4	117.8	102.6	107.8	108.0	7,059	6,010	559	548	2.0
경기	115.4	119.2	120.7	104.0	106.5	107.5	8,555	8,315	6,262	6,070	3.1
강원	119.6	122.3	147.6	120.4	105.7	107.0	163	103	743	728	1.9
충북	127.6	118.5	149.4	121.0	107.1	107.7	1,258	507	809	793	2.0
충남	110.7	112.3	144.1	125.1	106.8	107.6	5,597	2,645	1,210	1,180	2.5
전북	97.7	99.1	114.3	97.2	107.6	108.1	720	325	913	896	1.9
전남	105.4	102.5	110.6	98.8	107.6	107.9	3,715	3,810	939	922	1.9
경북	89.9	91.8	121.8	103.1	107.6	107.6	4,257	1,474	1,458	1,416	2.9
경남	101.2	98.6	120.1	98.3	105.9	107.1	4,775	2,141	1,658	1,624	2.1
제주	125.3	132.7	147.7	113.4	105.8	106.9	7	26	306	301	1.7

자료 : 통계청(www.kosis.kr),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충남 경제 동향(요약)



- 7월 전국의 동행종합지수, 선행종합지수의 순환변동치 전월대비 각각 상승
- 7월 충남의 동행종합지수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보합
- 기업경기과 시장경기 전망은 대체로 상승, 산업활동은 전년 동월대비 증가세 전환, 고용은 꾸준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임
- 물가는 안정세, 대형소매점 소비가 소폭 감소하였으며 대외거래는 나아지는 모습을 보임

경기

- 7월 경기동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2% 상승한 113.1를 나타냄
- 충남의 종합적인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9.0으로 전월대비 0.1p 상승
- 9월 업황전망BSI는 제조업, 비제조업은 모두 상승(제조업 80, 비제조업 77)
- 내수부진, 불확실한 경제상황, 경쟁심화, 환율 등이 기업 경영 애로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9월 시장경기 업황전망은 업황, 매출, 마진, 구매고객수, 상품판매가격 등 모두 상승할 것으로 예상함

산업활동

- 7월 광공업 생산지수 5.2%(111.9), 출하지수 3.0%(112.2), 재고지수 16.1%(142.5)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
-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기계장비, 전기·가스·증기업 등은 증가, 비금속광물 제품, 전기장비 등의 업종은 감소

소비 및 물가

- 7월 대형소매점판매액은 전년동월대비 3.2% 감소한 124,021백만원, 지수는 125.1
- 8월 자동차등록대수는 877,022대로 전월대비 0.1%(+621대) 증가
- 8월 소비자물가지수 107.6(+0.9%), 생활물가지수 106.8(0.3%) 전년동월대비 각각 상승

수출입

- 8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0.9% 증가(55억 97백만달러, 석유화학중간원료 +49.5%, 반도체 +20.0%, 석유제품 +13.7%, 전자응용기기 +4.0% 등)
-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6.8% 증가(26억 45백만달러, 곡실류 +233.3%, 원유 +10.9, 석유제품 -16.3%, 석탄 -12.0% 등)
- 8월 무역수지는 29억 53백만달러 흑자(전월대비 4억 49백만달러 증가)

고용

- 8월 경제활동인구 전년동월대비 8.9% 증가,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2.1%p 증가한 66.3%
-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8.4% 증가한 1,180천명(농림어업 196천명, 광공업 2550천명, 건설업 75천명, 도소매·음식숙박업 197천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365천명 등)
- 8월 실업률 2.5%로 전년동월보다 하락, 실업자 3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0.5% 증가

금융

- 7월 금융기관 수신 잔액은 49조 5,446억원으로 증가세 지속, 여신 잔액은 41조 4,712억원으로 증가폭 둔화
- 7월 금융기관 총 수신 증감액 +2,299억원, 여신 증감액 +831억원
- 7월 어음부도율 0.73%로 전월대비 0.69%p 상승
- 7월 부도금액 79억 1천만원으로 전월보다 75억 3천만원 증가

건설 및 부동산

- 8월 건축허가면적 966,712㎡로 전월대비 58.8%, 착공면적은 1,228,153㎡로 157.2% 각각 증가
- 8월 주택매매가격지수 100.8로 전월대비 보합, 전세가격지수 101.5로 전월대비 0.3% 상승(주요상승지역: 천안, 공주)
- 8월 토지거래는 9,722건으로 전년동월대비 1.9% 감소, 면적은 23.5% 증가

1. 경기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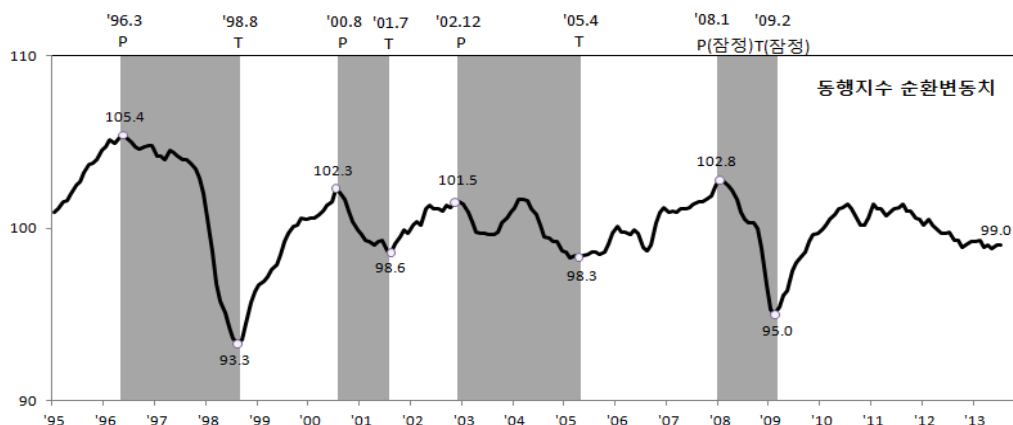
[전국 경기동향]

- 7월 전국 동행종합지수는 수입액, 서비스업생산지수 등은 감소하였으나, 소매판매액지수, 내수출하지수 등이 증가하여 전월대비 0.4% 상승
-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과 동일한 99.0임

동행종합지수 및 순환변동치 추이

(2010=100)

구분	'12.12월	'13.1월	2월	3월	4월	5월 ^o	6월 ^o	7월 ^o
○ 동행종합지수	111.3	111.8	112.3	112.3	112.9	113.2	113.9	114.3
· 전월비(%)	0.5	0.4	0.4	0.0	0.5	0.3	0.6	0.4
○ 순환변동치	99.2	99.2	99.3	98.9	99.0	98.8	99.0	99.0
· 전월차(p)	0.1	0.0	0.1	-0.4	0.1	-0.2	0.2	0.0



· 회색부분은 경기수축기임.

- 7월 선행종합지수는 재고순환지표, 코스피지수 등은 하락하였으나, 건설수주액, 수출입물가비율 등이 증가하여 전월대비 0.8% 상승
-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0.8로 전월대비 0.3p 상승

선행종합지수 추이

구분	'12.12월	'13.1월	2월	3월	4월	5월 ^o	6월 ^o	7월 ^o
○ 선행종합지수	109.9	110.1	110.4	110.7	111.3	112.0	113.0	113.9
· 전월비(%)	0.7	0.2	0.3	0.3	0.5	0.6	0.9	0.8
○ 순환변동치	100.0	99.8	99.6	99.5	99.6	99.9	100.5	100.8
· 전월차(p)	0.4	-0.2	-0.2	-0.1	0.1	0.3	0.6	0.3

자료 : 산업활동동향, 통계청

[충남 경기동향]

-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과 동일한 99.0를 나타냄
 - 7월 충남의 동행종합지수는 113.1로 전월대비 0.2% 상승

동행종합지수 추이

(2010=100)

구 분	'12.12월	'13.1월	2월	3월	4월	5월 ^p	6월 ^p	7월 ^p
○ 동행종합지수	112.2	111.7	111.0	111.1	112.0	112.4	112.8	113.1
· 전월비(%)	0.1	-0.4	-0.6	0.0	0.8	0.4	0.4	0.2
○ 순환변동치	99.4	99.5	98.6	98.3	98.9	98.9	99.0	99.0
· 전월차(p)	-0.2	0.0	-0.9	-0.3	0.5	0.1	0.1	0.0

주1) 동행종합지수는 수치오류, 연간보정 등으로 수치가 변동될 수 있으며, 최근 3개월 또는 6개월은 변동요인이 큼

주2) 대략적으로 3개월치를 잠정치로 표시함(p는 잠정치임)

- 7월 충남의 경기동향은 대형소매점판매지수는 제외한 비농가취업자수, 산업생산지수, 전력사용량, 수출액, 수입액 등 대부분의 구성지표가 상승
 - 비농가취업자수(+0.5%), 산업생산지수(+0.8%), 전력사용량(+0.6%), 수출액(+0.3), 수입액(+0.4) 상승
 -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1.9%)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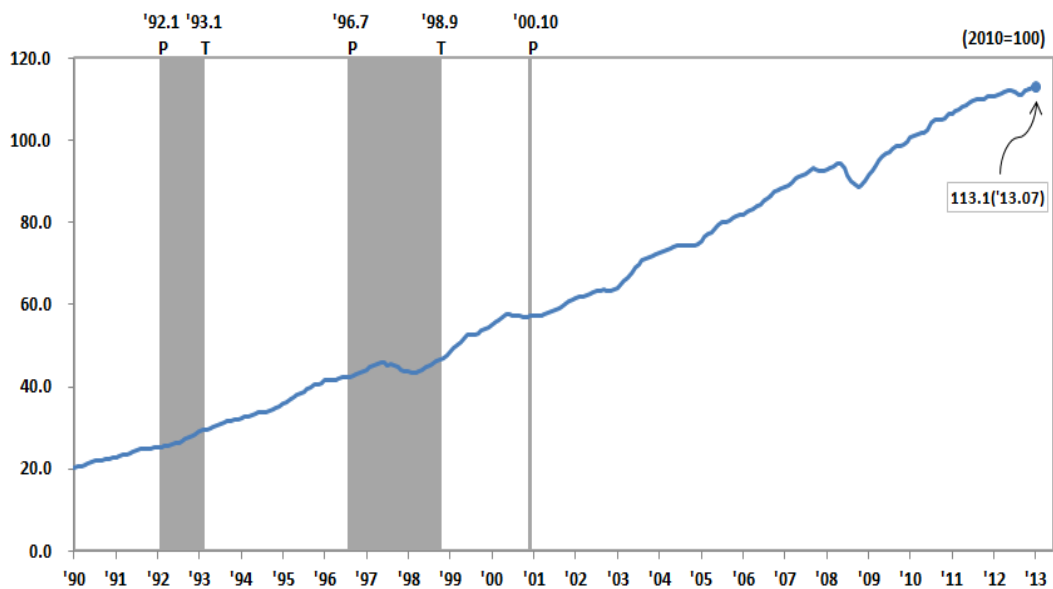
동행종합지수 구성지표의 전월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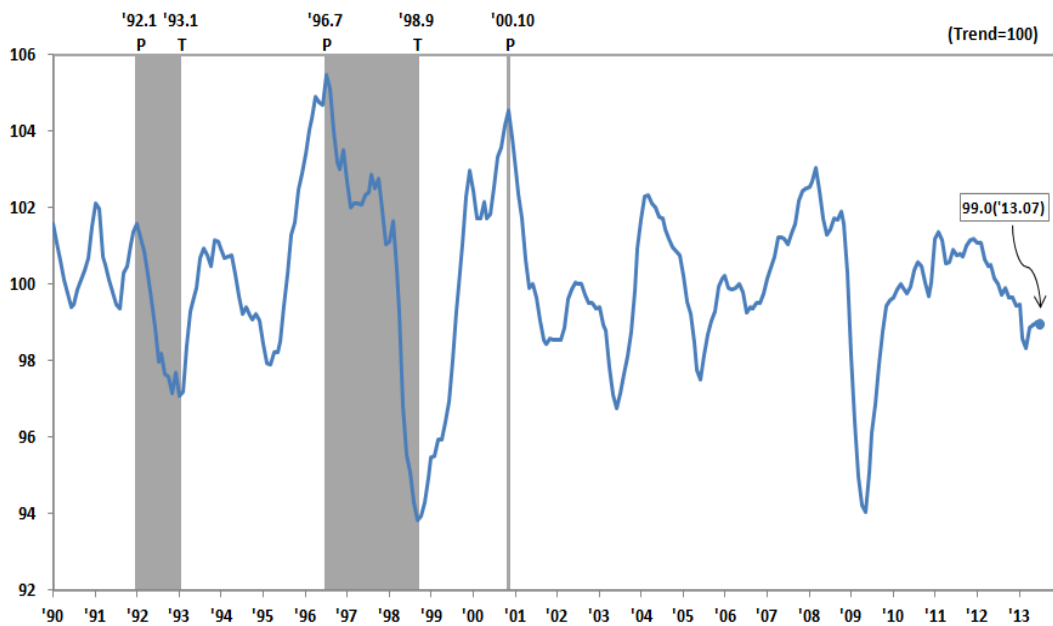
구 성 지 표	'12.12월	'13.1월	2월	3월	4월	5월 ^p	6월 ^p	7월 ^p
비농가취업자수	0.0	-0.1	0.3	1.5	1.7	1.4	0.6	0.5
산업생산지수	0.2	0.0	0.0	-0.3	-0.5	0.0	-0.4	0.8
대형소매점판매지수	0.7	-8.4	-11.2	-8.3	1.1	-0.5	1.0	-1.9
전력사용량	0.1	0.6	-0.2	0.6	1.1	1.1	0.8	0.6
수출액(실질)	0.7	-3.5	0.0	-0.1	-2.7	-1.3	-0.6	0.3
수입액(실질)	0.1	-1.1	2.3	1.6	3.5	-1.9	1.2	0.4

주 : 증감률은 계절조정 및 불규칙 조정한 계열임.

충남 동행종합지수(Coincident Composite Index)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Cyclical Component of Coincident CI)



[기업경기전망(BSI)]

- 9월 충남지역 제조업 업황전망BSI는 상승, 자금사정전망BSI는 하락
 - 제조업 업황전망BSI는 80으로 전월(76)보다 4p 상승, 자금사정전망BSI는 92로 전월(94)보다 2p 하락
- 9월 충남지역 비제조업 업황전망BSI는 상승, 자금사정전망BSI는 하락
 - 비제조업 업황전망BSI는 77로 전월(70)보다 7p 상승, 자금사정전망BSI는 83으로 전월(84)보다 1p 하락
- 충남지역의 제조업부문 업황전망 및 자금사정전망은 기준인 100을 하회하고 있지만 지난해보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다만, 비제조업부문에서 업황전망 및 자금사정전망의 변동폭이 크게 나타남

제조업의 주요 실적 BSI 추이

구분	'13.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전월대비 변동폭
업황 ¹⁾	74	83	85	83	81	75	79(77)	+4(+4)
총 남 ²⁾	74	83	85	83	82	76	80	+4
매출	85	89	95	102	98	91	93	+2
생산	96	100	105	102	108	99	95	-4
신규수주	91	93	95	95	93	86	93	+7
채산성	87	92	92	87	91	88	89	+1
제품재고	108	103	104	103	107	116	109	-7
인력사정	90	78	82	86	91	88	87	-1
자금사정 ¹⁾	84	90	93	94	98	94	92(88)	-2(0)
총 남 ²⁾	83	89	93	94	98	95	92	-3
외부자금수요	110	111	110	105	103	109	109	0
자금조달사정	92	93	100	96	101	100	101	+1

주 : ()내는 전국 기준, 업황 및 자금사정을 제외한 수치는 대전충남의 통합 수치임.

1) 대전·충남 업황 수치.

2) 기존 대전·충남 통합하여 공표하였던 업황 및 자금사정BSI가 2012년 1월부터 지역이 분리되어 공표됨.

자료 : 대전·충남지역 기업경기 및 자금사정 조사결과,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비제조업의 주요 실적 BSI 추이

구분	'13.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전월대비 변동폭
업황	66	71	72	73	70	72	76(70)	+4(+3)
총 남	66	73	71	73	67	70	77	+7
매출	80	79	81	82	76	79	84(78)	+5(0)
채산성	86	83	78	82	83	84	83(82)	-1(+3)
인력사정	84	85	78	87	82	79	87(87)	+8(+1)
자금사정	84	82	85	85	82	84	86(80)	+2(-1)
총 남	82	82	87	87	80	84	83	-1
외부자금수요	103	108	108	103	103	100	101	+1
자금조달사정	89	86	92	93	92	91	95	+4

$$BSI^*(\text{Business Survey Index}) = \frac{(\text{긍정적인 응답업체수} - \text{부정적인 응답업체수}) \times 100}{\text{전체응답업체수}} + 100$$

* BSI가 기준치인 100인 경우 긍정적인 응답업체수와 부정적인 응답업체수가 같음을 의미하며, 100이상인 경우에는 긍정응답업체수가 부정응답 업체수보다 많음을, 100이하인 경우에는 그 반대임을 나타냄.

[시장경기 동향]

- 8월 충남지역 시장경기는 전월보다 마진, 자금사정을 제외한 그 외 업황, 매출, 상품판매 가격 등은 상승
 - 상승지수 : 업황(+4.5p), 매출(+3.5p), 매입단가(+4.1p), 상품판매가격(+7.2p), 구매고객수(+2.7p)
 - 하락지수 : 마진(-0.6p), 자금사정(-4.1p)
 - 장마 이후 지속적인 폭염 및 여름휴가 시즌으로 인하여 전통시장 고객 유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월보다 상승하며 양호한 모습
- 9월 시장경기 전망은 업황, 매출, 마진, 구매고객수 등에서 30p 이상 크게 상승
 - 상승지수 : 업황(+33p), 매출(+36.9p), 마진(+36.1p), 매입원가(+6.7p), 상품판매가격(+13.6), 자금사정(+27.8p), 구매고객수(+33.6p)
 - 가을로 접어들면서 선선해진 날씨의 계절적 요인과 9월 중순 추석 명절요인으로 전통시장 고객 유입으로 구매고객수, 매출, 마진 등에 대한 기대심리 상승

시장경기 체감 및 전망

(기준지수=100)

구분		'13.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전망)
업황	전국	55.0	61.7	65.5	57.0	47.9	41.6	101.3
	충남	59.1	58.8	69.6	53.6	49.4	53.9	105.5
매출	전국	53.4	61.1	68.4	57.2	47.6	40	112.1
	충남	55.4	61.2	66.9	57.2	49.7	53.2	116.3
마진	전국	58.4	63.4	64.5	62.3	52.3	43.8	100.2
	충남	54.7	66.7	62.4	55.4	56.2	55.6	104.4
매입 원가	전국	119.8	121.2	113.9	113.6	116.6	119.1	118.5
	충남	115.0	114.3	106.6	115.3	120.4	124.5	121.8
상품 판매가격	전국	95.1	97.7	96.9	94.6	94.2	91.9	104.3
	충남	98.9	93.3	96.2	99.5	96.9	104.1	110.9
자금 사정	전국	55.5	59.4	62.6	60.0	54.2	44.7	88.8
	충남	54.1	62.4	68.3	59.6	58.3	54.2	96.5
구매 고객수	전국	52.6	60.5	65.8	55.4	44.8	40.7	109.1
	충남	55.5	62.7	71.4	54.8	49.7	52.4	108.3

주 : 당월을 제외한 수치는 체감지수를 나타냄(당월 : 전망지수).

자료 : 시장경기동향조사보고,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진흥원

2. 산업활동

[광공업 산업활동]

- 7월 충남의 광공업생산은 전년동월대비 5.2%, 전월대비 3.8% 각각 증가
 - 비금속광물제품, 전기장비 등의 업종에서 감소하였으나,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기계장비, 전기·가스·증기업 등의 업종에서 증가함
- 출하지수는 전년동월대비 3.0%, 전월대비 1.9% 각각 증가하였고, 재고지수도 전년동월대비 16.1%, 전월대비 5.5% 각각 증가함
 - 출하는 석유정제품, 자동차 등의 업종에서 감소하였으나, 전기·가스·증기업,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화학제품 등의 업종에서 증가
 - 재고는 기계장비, 음료 등의 업종에서 감소하였으나,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식료품, 화학제품 등의 업종에서 증가

광공업 생산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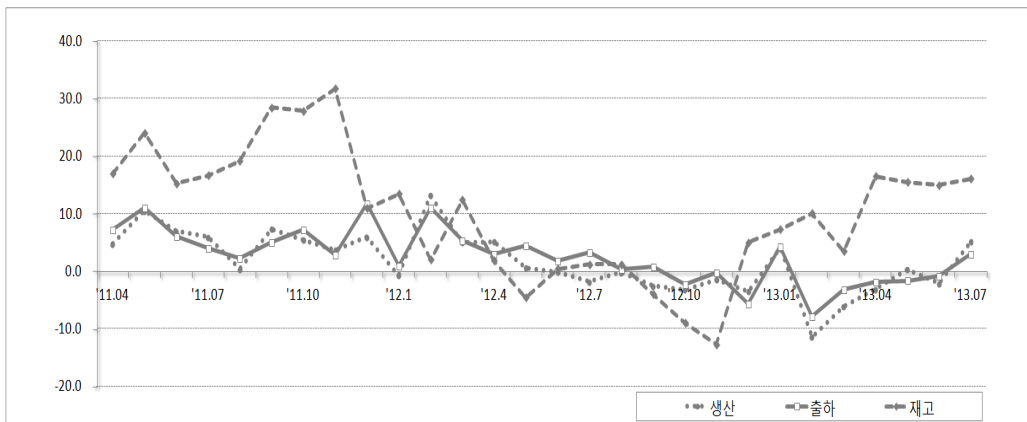
(2010=100.0, %)

구 분		2012년	2013년					증감률	
		7월	4월	5월	6월 ^P	7월 ^P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국	생 산	105.6	108.0	109.0	106.2	106.5	0.9	0.3	
	출 하	104.8	107.3	108.1	106.4	105.1	0.3	-1.2	
	재 고	115.8	120.2	121.6	118.7	123.6	6.7	4.1	
충남	생 산	106.4	104.8	108.7	107.8	111.9	5.2	3.8	
	출 하	108.9	105.7	109.7	110.1	112.2	3.0	1.9	
	재 고	122.7	135.5	134.9	135.1	142.5	16.1	5.5	

자료 : 광공업생산동향, 통계청.(원지수)

충남의 광공업 산업 활동 추이

(전년동월대비, %)



3. 소비 · 물가

[소비]

- 7월 충남의 대형소매점 경성판매액은 전년동월대비 3.2%, 전월대비 4.5% 각각 감소
 - 대형소매점 경성판매액은 124,021백만원으로 전월보다 5,789백만원 감소
 -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는 125.1로 전년동월대비 4.8%, 전월대비 4.3% 각각 감소

대형소매점 판매동향

(경성금액, 불변지수, 2010=100,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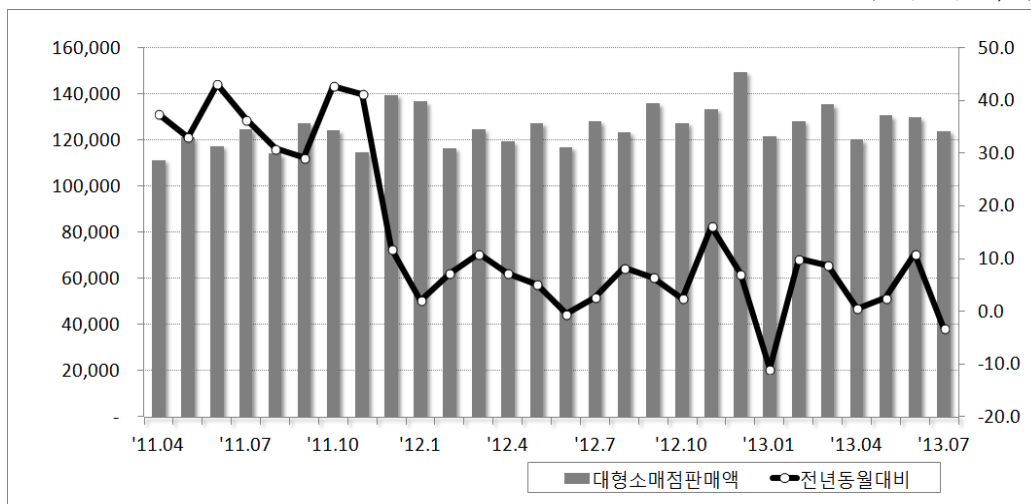
구분		2012년	2013년				증감률	
		7월	4월	5월	6월 ^o	6월 ^p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국	판매액지수	104.3	102.6	109.7	105.5	103.1	-1.2	-2.3
	판매액	5,826,643	5,838,050	6,290,936	6,026,674	5,880,280	0.9	-2.4
충남	판매액지수	131.4	121.3	130.9	130.7	125.1	-4.8	-4.3
	판매액	128,184	120,308	130,684	129,810	124,021	-3.2	-4.5

주 : 기 공표되었던 대형마트판매액은 10월부터 공표 중단.

자료 : 대형소매점 판매동향, 충청지방통계청.

충남의 대형소매점판매액 추이

(단위 : 백만원, %)



주 : 대형소매점판매액(좌측), 전년동월대비(우측).

[자동차 등록]

- 8월 충남의 자동차등록대수는 전년동월대비 3.4%, 전월대비 0.1% 각각 증가
 - 8월 총 자동차등록대수는 877,022대로 전년동월보다 28,719대, 전월보다 621대 각각 증가
 - 전년동월대비 승합차(-0.4%)는 감소한 반면, 특수화물(+7.5%), 승용차(+4.2%), 화물(+1.6%)은 증가
 - 전월대비 승용차(+0.2%), 특수화물(+0.3%)로 소폭 증가한 반면, 승합차(-0.2%), 화물(-0.2%)는 소폭 감소

* 전년동월대비 등록대수 감소에는 2012.7월 세종시출범으로 인한 영향에 기인함.

자동차 등록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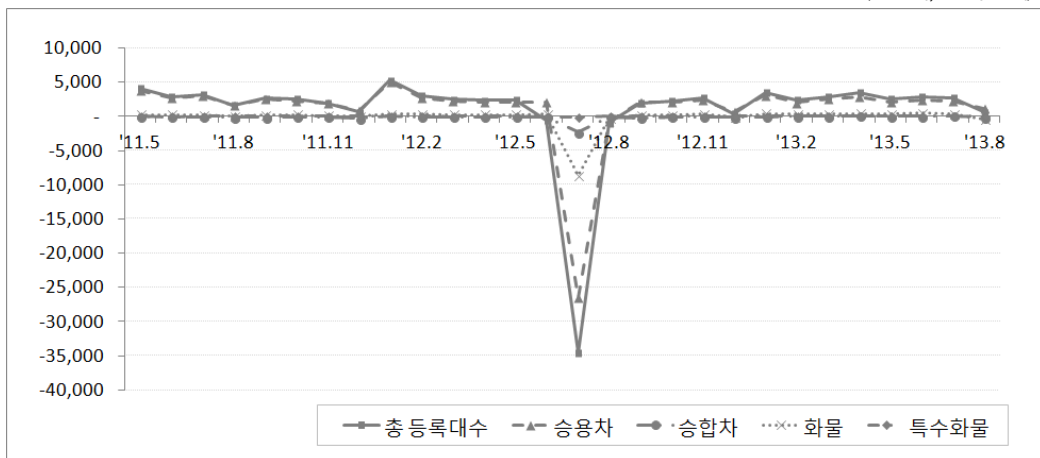
(단위 : 대)

구분		2012년	2013년					증감	
		8월	5월	6월	7월	8월	전년동월차	전월차	
합계		848,303	870,741	873,672	876,401	877,022	28,719	621	
차종별	승용	608,524	628,480	630,864	633,075	634,179	25,655	1,104	
	승합	47,155	46,930	46,956	47,103	46,986	-169	-117	
	화물	189,786	192,325	192,837	193,183	192,807	3,021	-376	
	특수화물	2,838	3,006	3,015	3,040	3,050	212	10	
용도별	자가용	808,702	830,165	832,865	835,939	836,569	27,867	630	
	관용	4,014	4,174	4,207	4,302	4,325	311	23	
	영업용	35,587	36,402	36,600	36,160	36,128	541	-32	

자료 : 시군별 자동차등록현황, 충청남도.

자동차 등록 추이

(전월차, 단위 : 대)



주 : 2012.7월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으로 연기군 및 공주시 일부가 충청남도외 분리됨에 따라 7월 자동차등록대수가 급감하였음.

[물가]

- 8월 충남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07.6으로 전년동월대비 0.9%, 전월대비 0.3% 각각 상승
 - 농축수산물지수(-1.1%)는 하락하였고, 서비스물가지수(+1.1%), 공업제품(+0.8%) 등은 소폭 상승함
 - 생활물가지수는 106.8로 전년동월대비 0.3%, 전월대비 0.8% 각각 상승
 - 신선식품지수는 111.8로 전년동월대비 1.7% 하락, 전월대비 6.3% 상승
 - 신선어개 110.4(-1.6%), 신선채소 107.9(+12.3%), 신선과실 118.4(-8.8%), 기타신선 92.2(-23.2%)
- * ()안은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전국 및 충남 소비자물가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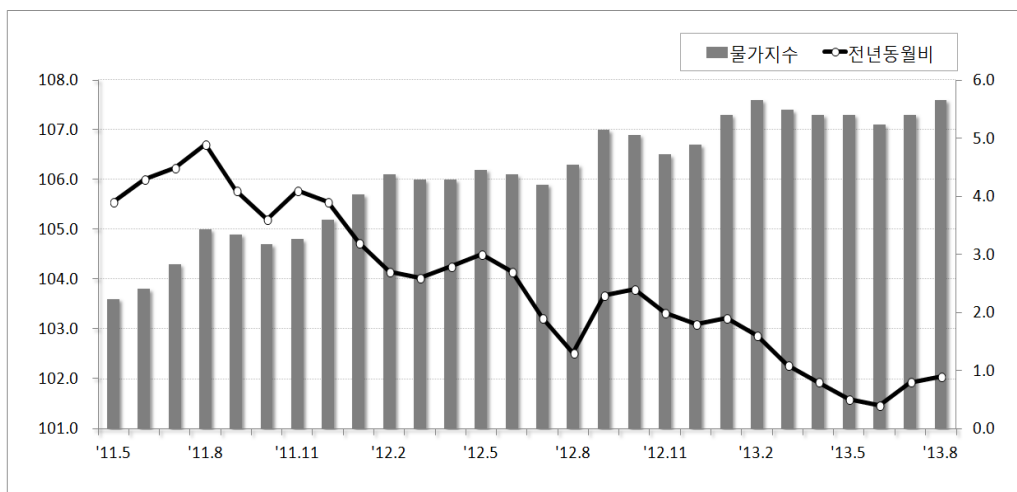
(2010=100, 단위 : %)

구분	2012년		2013년					증감률	
	8월	5월	6월	7월	8월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국 소비자물가지수	106.3	107.3	107.2	107.4	107.7	1.2	0.3		
충남 소비자물가지수	106.6	107.3	107.1	107.3	107.6	0.9	0.3		
상품 상·하	상 품	108.9	109.4	109.2	109.4	109.7	0.7	0.3	
	서비스	104.4	105.2	105.1	105.2	105.6	1.1	0.4	
생활물가지수		106.5	107.3	106.0	106.0	106.8	0.3	0.8	
신선식품지수		113.7	110.7	104.6	105.2	111.8	-1.7	6.3	

자료 : 소비자물가동향, 충청지방통계청.

충남 소비자물가지수

(2010=100.0, 전년동월비 %)



주 : 소비자물가지수(좌축), 전년동월대비(우축).

4. 수출입

[수출입]

- 8월 충남의 수출은 55억 97백만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0.9%, 전월대비 5.2% 각각 증가
 - 주요 수출품인 반도체, 석유제품, 전자응용기기 등은 전년동월대비 수출이 호조세를 보인 반면,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는 위축됨
 - 주요 수출품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전년동월대비 수출은 증가하였으나 전월대비 감소하는 모습
- 8월 충남의 수입은 26억 45백만달러로 전년동월대비 6.8% 증가, 전월대비 6.2% 감소
 - 전년동월대비 곡식류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수입비중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 원유의 수입이 그 뒤를 이음
- 8월 충남의 무역수지는 29억 53백만달러 흑자를 기록
 - 전월에 비해 수출은 증가하고 수입은 감소함에 따라 무역수지는 전월보다 늘어남

수출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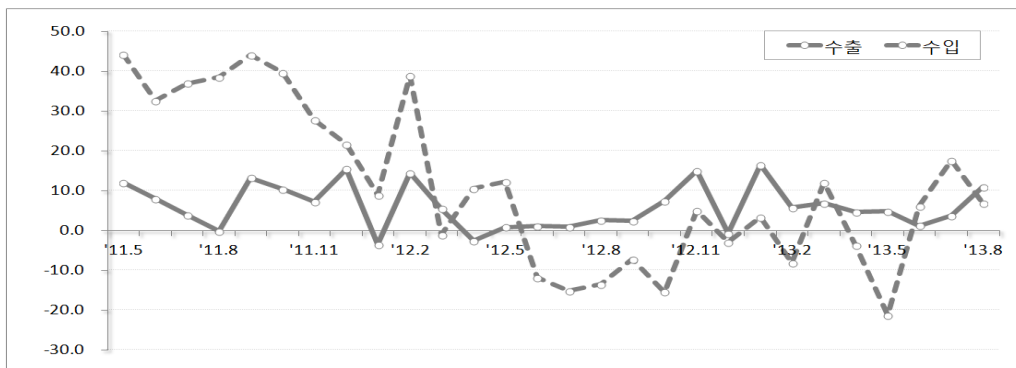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12년	2013년				증감률	
		8월	5월	6월	7월 ^P	8월 ^P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국	수출	43,045	48,320	46,690	45,835	46,378	7.7	1.2
	수입	41,116	42,418	40,714	43,299	41,525	1.0	-4.1
	무역수지	1,929	5,902	5,976	2,535	4,852	-	-
충남	수출	5,048	5,297	5,065	5,322	5,597	10.9	5.2
	수입	2,477	2,452	2,929	2,818	2,645	6.8	-6.2
	무역수지	2,571	2,846	2,136	2,503	2,953	-	-

자료 : 수출입 총괄, 지역별 수출입, 무역통계, 한국무역협회.

충남의 수출입 추이

(전년동월대비, %)



8월 품목별 수출액(금액기준)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품목명 ¹⁾	수출액	증감률		수출비중
			전년동월비	전월비	
	수출총액	5,597	10.9	5.2	100.0
1	반도체	1,452	20.0	1.2	25.9
2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852	-18.5	5.1	15.2
3	석유제품	557	13.7	52.6	10.0
4	전자응용기기	465	4.0	-12.3	8.3
5	석유화학중간원료	281	49.5	-12.5	5.0

주 : 1) MTI 3단위 기준. 절사된 단위로 인한 무역협회와 증감률 차이 발생

자료 : 지역의 품목별 수출입, 무역통계, 한국무역협회.

8월 품목별 수입액(금액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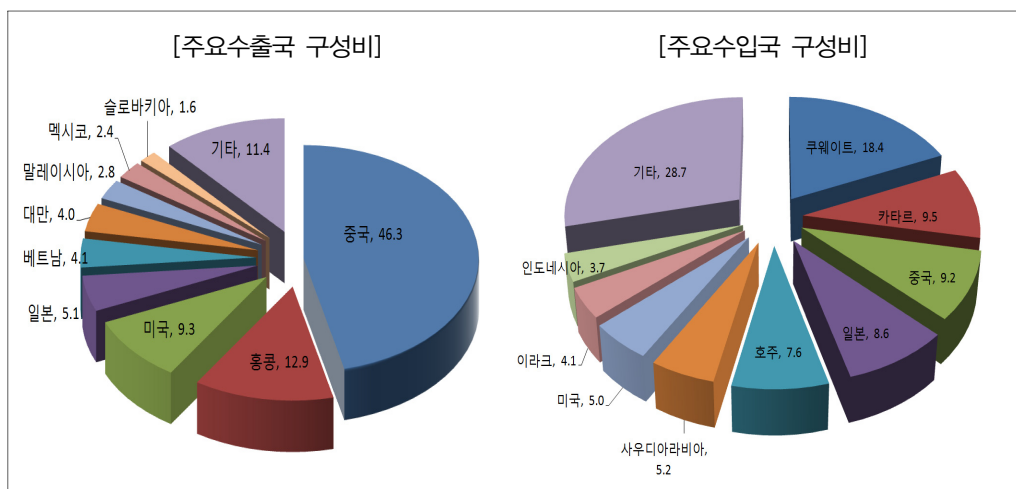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품목명 ¹⁾	수입액	증감률		수입비중
			전년동월비	전월비	
	수입총액	2,645	6.8	-6.1	100.0
1	원유	1,244	10.9	-3.8	47.0
2	석유제품	2,016	681.4	893.1	76.2
3	석탄	176	-12.0	-26.1	6.7
4	곡식류	70	233.3	25.0	2.6
5	정밀화학원료	54	-12.9	-15.6	2.0

주 : 1) MTI 3단위 기준. 절사된 단위로 인한 무역협회와 증감률 차이 발생

자료 : 지역의 품목별 수출입, 무역통계, 한국무역협회.

8월 국가별 수출입 현황



자료 : 지역의 국별수출입, 무역통계, 한국무역협회.

5. 고 용

[경제활동인구]

- 8월 충남의 15세이상인구, 경제활동인구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
 - 15세이상인구는 1,826천명으로 전년동월(1,732천명)보다 95천명(+5.5%) 증가
 - 경제활동인구는 1,210천명으로 전년동월(1,112천명)보다 99천명(+8.9%) 증가
- 경제활동참가율은 66.3%로 전국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전년동월대비 2.1%p 상승

경제활동인구 및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 천명, %, %p)

구분		2012년	2013년					증감(률)	
		8월	5월	6월	7월	8월	전년동월비	전월비	
경제 활동 인구	전국	25,623	26,195	26,291	26,301	26,074	1.8	-0.9	
	충남	1,112	1,215	1,223	1,228	1,210	8.9	-1.4	
	남자	664	726	725	735	722	8.7	-1.8	
	여자	448	490	498	493	489	9.2	-1.0	
경제 활동 참가 율	전국	61.5	62.3	62.5	62.4	61.8	0.3	-0.1	
	충남	64.2	67.3	67.4	67.4	66.3	2.1	0.0	
	남자	76.9	80.2	79.6	80.3	78.7	1.8	0.7	
	여자	51.5	54.4	55.1	54.4	53.7	2.2	-0.7	

주 :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15세이상인구)×100. /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동월, 전월 증감을 나타냄

자료 : 행정구역별 경제활동인구, 통계청.

[취업자]

- 8월 충남의 취업자는 1,180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4% 증가하며 지역의 고용이 안정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전월대비 1.2% 감소
 - 충남의 청년층 취업자는 179천명, 고령층 취업자는 346천명으로 청년층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8.9%, 고령층 취업자 12.3% 각각 증가
- 도소매음식숙박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부문의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증가
 - 농림어업 196천명(+4.5%), 광공업 250천명(+18.0%), 건설업 75천명(+7.7%),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은 365천명(14.4%), 전기·운수·통신금융업은 96천명(+6.0%)으로 전년동월대비 증가한 반면, 도소매음식숙박업 197천명(-5.8%)으로 전년동월대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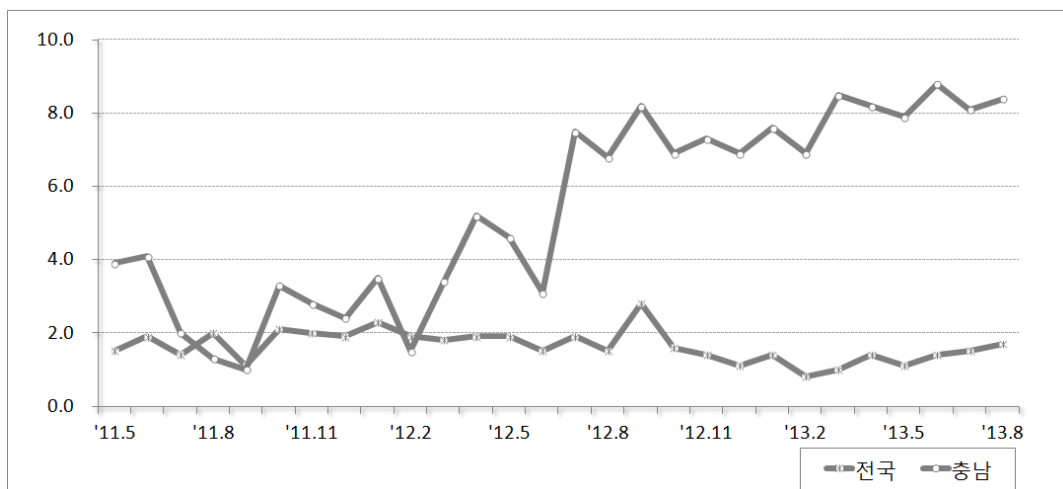
연령별 · 산업별 취업자 동향

(단위 : 천명, %)

구분		2012년	2013년					증감률	
		8월	5월	6월	7월	8월	전년 동월비	전월비	
합계	전국	24,859	25,398	25,478	25,473	25,291	1.7	-0.7	
	충남	1,088	1,180	1,186	1,194	1,180	8.4	-1.2	
청년층 (15~29세)	전국	3,868	3,826	3,822	3,897	3,808	-1.5	-2.3	
	충남	165	187	188	191	179	8.9	-5.9	
고령층 (50세이상)	전국	5,514	5,899	5,924	5,922	5,875	6.5	-0.8	
	충남	308	344	345	347	346	12.3	-0.3	
	55~59세	97	107	107	109	113	16.6	3.4	
	60세이상	211	237	238	238	233	10.5	-2.0	
산업별	농림어업	188	197	200	198	196	4.5	-0.9	
	광공업	212	253	247	247	250	18.0	1.3	
	건설업	70	82	83	81	75	7.7	-7.5	
	도소매 음식숙박업	209	200	205	210	197	-5.8	-6.3	
	사업·개인·공 공서비스업	319	354	359	360	365	14.4	1.6	
	전기·운수·통 신금융업	91	94	93	99	96	6.0	-2.5	

취업자 증감률 추이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자료 : 충청지역 고용동향, 충청지방통계청.

[실업률]

- 8월 충남의 실업자는 3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0.5% 증가하였으며, 실업률은 2.5%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 전월대비 0.3%p 하락

6. 금 용

[수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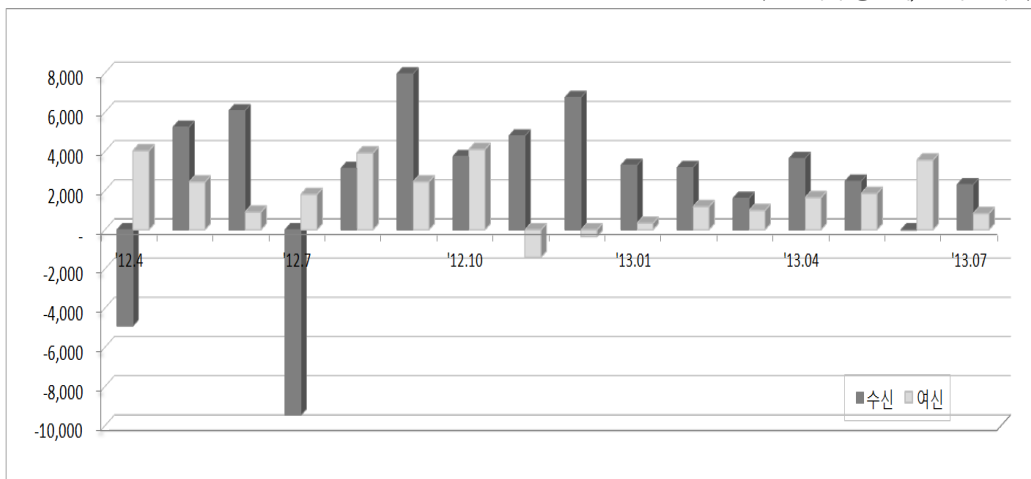
- 7월 충남의 수신 잔액은 예금은행 19조 2,959억원, 비은행기관 30조 2,487억원으로 충남 지역 금융기관 총 수신 잔액은 49조 5,446억원을 나타냄
 - 예금은행 : 세금납부, 지자체 예산 집행자금 인출 등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자금이전 (충남교육청 자금이 대전으로부터 이관)으로 증가 전환[6월 -1,905억원 → 7월 +2,486억원]
 - 비은행기관 : 상호금융은 부가세 등 세금납부, 반기말 성과평가 종료에 따른 단기 유입 자금 유출 등으로 감소 전환[6월 +1,889원 → 7월 -187억원]
 - 총 수신증감액 : 6월 -16억원 → 7월 +2,299억원

[여신]

- 7월 충남의 여신 잔액은 예금은행 25억 6,198억원, 비은행기관 15조 8,514억원으로 충남지역 금융기관 총 여신 잔액은 41조 4,712억원을 나타냄
 - 예금은행 : 대기업을 전월에 이어 대출이 감소하고 중소기업대출도 부진하면서 증가 폭이 축소, 가계대출도 취득세 감면혜택 종료에 따른 주택거래 부진 등으로 감소 전환[6월 +2,732억원 → 7월 -44억원]
 - 비은행기관 : 상호금융은 전월 수준을 유지, 저축은행이 기업대출 확대로 증가 전환 [6월 +829억원 → 7월 +875억원]
 - 총 여신증감액 : 6월 +3,561억원 → 7월 +831원

금융기관 여수신 추이

(전월대비 증감액, 단위 : 억원)



자료 : 금융기관여수신동향,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어음부도]

- 7월 충남의 부도율은 0.73%로 전월대비 0.69%p 상승
 - 지역별로는 천안 0.53%, 공주 0.07%, 홍성 0.00%, 아산 4.22%, 당진 0.00%, 서산 0.03%의 부도율을 나타냄

충남지역 어음부도율

(단위 : %, %p)

구분	2012년		2013년				증감	
	연중	7월	4월	5월	6월	7월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
충남	0.38	0.21	0.11	0.12	0.04	0.73	0.69	0.52
천안	0.47	0.09	0.07	0.16	0.01	0.53	0.52	0.44
공주	0.41	1.79	1.12	0.30	0.02	0.07	0.05	-1.72
홍성	0.09	0.54	0.11	-	-	0.00	0.00	-0.54
아산	0.35	0.43	0.08	0.21	0.28	4.22	3.94	3.79
당진	1.49	0.30	0.09	-	0.06	0.00	-0.06	-0.30
서산	0.01	0.01	-	-	-	0.03	0.03	0.02

자료 : 대전·충남지역 어음부도 동향,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 7월중 부도금액은 79억 1천만원으로 전월보다 75억 3천만원 증가
 - 제 조 업 : 6월 3천만원 → 7월 61억 5천만원
 - 건 설 업 : 6월 3억원 → 7월 13억 6천만원
 - 서비스업 : 7월 3억 4천만원
- 7월중 부도업체수는 5개로 전월보다 4개 업체 증가

업종별 부도금액 및 부도업체수

(단위 : 억원, 개)

구분		2012년	2013년				증감	
		7월	4월	5월	6월	7월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부 도 금 액	제조업	12.8	7.3	10.4	0.3	61.5	48.7	61.2
	건설업	8	2.0	-	3.0	13.6	5.6	10.6
	서비스업	4	3.5	0.8	-	3.4	-0.6	-
	기 타	0.6	1.0	1.6	0.5	3.4	2.8	2.9
	합 계	25.4	13.8	12.8	3.8	79.1	53.7	75.3
부 도 업 체 수	제조업	1	1	1	1	4	3	3
	건설업	-	-	-	-	1	1	-
	서비스업	-	-	1	-	-	-	-
	기 타	-	-	-	-	-	-	-
	합 계	1	1	2	1	5	4	4

자료 : 대전·충남지역 어음부도 동향,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신설법인수]

- 7월 충남의 신설법인수는 282개로 전월(215개)보다 67개 증가

7. 건설 · 부동산

[건축허가 및 착공]

- 8월 충남의 건축허가면적은 966,712㎡로 전년동월대비 10.0%, 전월대비 58.8% 각각 증가
 - 8월 허가면적 구성비 : 주거용(26.5%), 상업용(39.5%), 공업용(16.3%) 등

건축허가면적

(단위 : ㎡)

구분	2012년	2013년					증감률	
	8월	5월	6월	7월	8월	전년동월비	전월비	
건축허가	878,978	874,153	793,231	608,787	966,712	10.0	58.8	
주거용	462,415	196,204	347,337	188,108	256,247	-44.6	36.2	
상업용	90,296	208,305	133,312	115,854	381,910	323.0	229.6	
농수산용	64,775	47,528	20,263	47,198	18,645	-71.2	-60.5	
공업용	165,471	129,979	136,989	131,313	157,929	-4.6	20.3	
기타	96,021	292,137	155,330	126,314	151,981	58.3	20.3	

자료 : 건축허가 현황, 충청남도 건축도시과.

- 8월 충남의 건축착공면적은 1,228,153㎡로 전년동월대비 96.6%, 전월대비 157.2% 각각 증가
 - 8월 착공면적 구성비 : 주거용(38.0%), 상업용(31.9%), 공업용(11.4%) 등

건축착공면적

(단위 : ㎡)

구분	2012년	2013년					증감률	
	8월	5월	6월	7월	8월	전년동월비	전월비	
건축착공	624,679	565,109	471,464	477,506	1,228,153	96.6	157.2	
주거용	351,444	140,495	189,983	122,745	466,506	32.7	280.1	
상업용	68,287	168,805	175,758	97,080	392,262	474.4	304.1	
농수산용	23,158	43,802	34,076	44,721	13,443	-42.0	-69.9	
공업용	134,175	154,099	41,786	150,318	140,472	4.7	-6.6	
기타	47,615	57,908	29,861	62,642	215,470	352.5	24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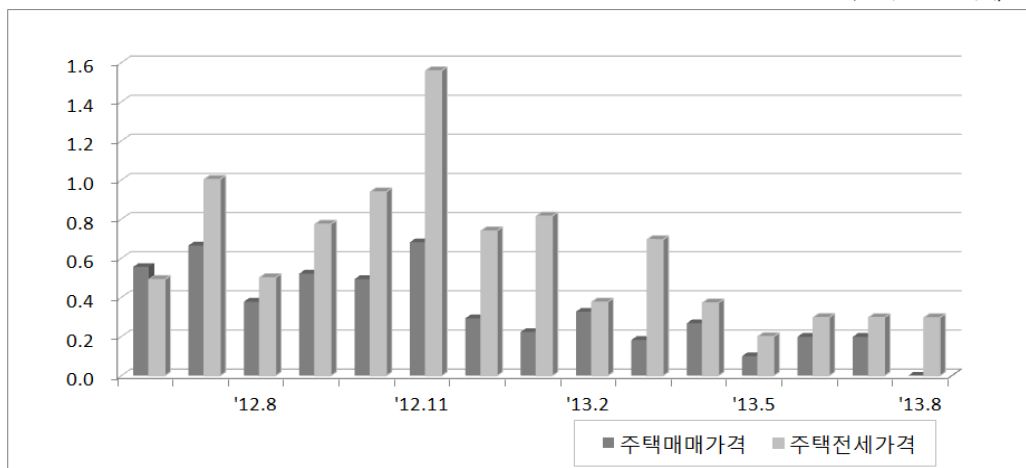
자료 : 건축착공 현황, 충청남도 건축도시과.

[주택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

- 8월 충남의 주택매매가격지수는 100.8로 전년동월대비 3.6% 상승, 전월대비 포함
 - 매매가격 주요 상승지역은 아산(+0.16%)와 천안 동남구(+0.31%)이며, 공주는(-0.73%) 전월대비 소폭 하락함
 - 이사철 수요 증가와 천안 외곽지역의 기업체공장 근로자 수요 및 세종시 인근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며 가격이 상승
- 8월 충남의 주택전세가격지수는 101.5로 전년동월대비 7.6%, 전월대비 0.3% 각각 상승
 - 천안시는 인근산업단지의 출퇴근 수요 및 세종시 인근 주거수요 등의 증가세가 지속, 이사철을 맞아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강세
 - 전세가격 주요 상승지역은 천안 동남구(+0.48%), 공주(+0.86%)임

주택매매가격 및 주택전세가격 증감률

(단위 : 전월대비, %)



자료 : 월별 주택 가격동향, 국민은행.

[토지거래]

- 8월 충남의 토지거래는 9,722건으로 전년동월대비 1.9%, 전월대비 13.2% 각각 감소
 - 토지거래 면적은 12,931천㎡로 전년동월대비 23.5% 증가, 전월대비 2.5% 감소

토지거래

(단위 : 건, 천㎡, %)

구분	2012년	2013년				증감률	
	8월	5월	6월	7월	8월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필지	9,908	13,369	14,625	11,204	9,722	-1.9	-13.2
면적	10,470	15,637	12,554	13,264	12,931	23.5	-2.5

자료 : 토지거래현황, 온나라부동산정보 통합포털, 국토교통부.

해외 경제 동향(요약)



- 미국 등을 중심으로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겠으나, 미국 양적완화 축소 우려, 중국 경제성장 둔화, 신흥국 경제 둔화 등 우려 요인이 상존
- 다만, 유로경제가 7분기만에 침체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나, 높은 실업률 등 여전히 불안요인이 상존

미국

- 미국 경제는 '13. 2/4분기 GDP성장률(전기비연율)이 2.5%로 속보치(1.7%)보다 상향 조정
- 산업생산 증가하고 기업경기전망이 나아지는 모습이 지속되고 있으며, 물가와 실업률도 소폭 개선되는 모습

중국

- 중국 경제는 '13. 2/4분기 GDP성장률이 7.5%로 전분기(7.7%)보다 소폭 둔화
- 최근 산업생산, 소비는 개선되고 있으나 정부의 핫머니 규제, 해외수요부진 등으로 부진하던 수출이 다소 회복됨

일본

- 일본 경제는 '13. 2/4분기 GDP성장률이 0.6%로 전분기(0.9%)보다 감소
- 생산자물가가 소폭 상승하였으나 수출이 증가세 반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지난해 하반기이후 안정적인 모습

유로지역

- 유로지역 경제는 '13. 2/4분기 GDP성장률이 0.3%로 전분기(-0.3%)보다 증가
- GDP성장률이 2012년 이후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나 고용부진, 재정긴축으로 인한 역내 수요 위축 등 하방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성장세는 미미한 수준
- 산업생산, 제조업 PMI가 지난달에 이어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대외거래도 증가세 전환

1. 미 국

- 미국 경제는 2013년 2/4분기 GDP성장률(수정치)이 2.5%(전기비연율)로 속보치(1.7%)보다 상향 조정됨
- 7월 미국의 산업생산은 전월과 동일한 수준
 - 산업생산 증가세가 전월보다 소폭 하향되었으나, 기업경기전망을 나타내는 ISM제조업 지수는 8월 55.7을 기록하여 전월에 이어 '11.4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
 - * ISM제조업지수 : 제조업체의 구매담당자가 느끼는 경기를 지수화 한 것
- 소비자물가는 전월대비 0.2% 증가, 생산자물가는 전월과 동일
- 실업률은 7.4%를 나타내며 전월보다 소폭 하락
 - 실업률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비농업부문 취업자 증가폭이 예상보다 크게 하회하는 등 고용 회복세가 둔화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 %, 전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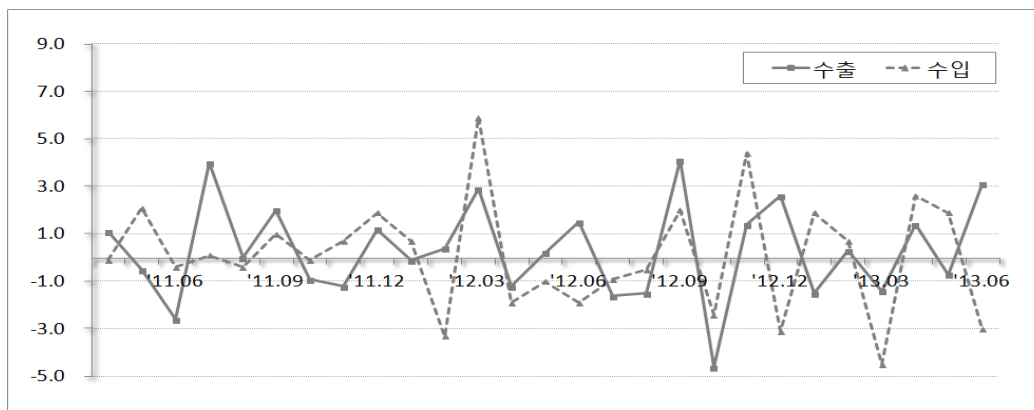
구분		2012년	2013년 ^p				
		연간	3월	4월	5월	6월	7월
산업생산		3.6	0.2	-0.4	0.0	0.2	0.0
소매판매		5.0	-0.3	0.2	0.5	0.6	0.2
물가	생산자 ¹⁾	1.9	-0.6	-0.7	0.5	0.8	0.0
	소비자	2.1	-0.2	-0.4	0.1	0.5	0.2
무역	수출	4.5	-1.4	1.4	-0.7	3.1	-
	수입	2.8	-4.5	2.6	1.9	-3.0	-
실업률 ²⁾		8.1	7.6	7.5	7.6	7.6	7.4
주가지수 ³⁾		13,104.1	14,578.50	14,839.80	15,115.60	14,909.60	14,810.3

주 : 1) 최종재 기준 2) 군인 제외, 계절변동조정, 당월수치 3) 다우존스 공업평균주가, 기말기준

자료 : 월간경제동향(2013.8), 기획재정부

미국의 수출입 추이

(단위 : %, 전월대비)



2. 중 국

- 중국 경제는 2013년 2/4분기 GDP성장률 7.5%(전년동기대비)를 나타냄
 - 中정부의 핫머니 규제, 해외수요 부진 등으로 수출이 부진하였으나 최근 수출비중이 큰 미국, 홍콩 등을 중심으로 다소 회복되면서 상승세 전환
- 7월 산업생산은 9.7%, 소매판매는 13.2%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증가
- 소비자물가는 전월대비 0.1% 증가, 생산자물가는 전월대비 0.3% 감소
-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5.1%, 수입은 10.9% 각각 증가
 - 최근 부진하던 대외거래가 상승세 전환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 %,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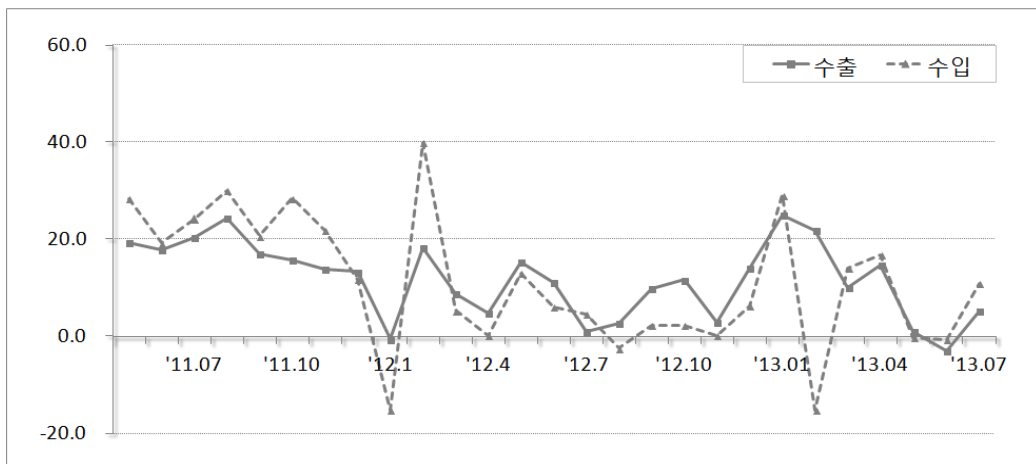
구분	2012년 연간	2013년 ^P				
		3월	4월	5월	6월	7월
산업생산	10.0	8.9	9.3	9.2	8.9	9.7
소매판매	14.3	12.6	12.8	12.9	13.3	13.2
물가 ¹⁾	생산자	-1.7	0.0	-0.6	-0.6	-0.3
	소비자	2.6	-0.9	0.2	-0.6	0.0
무역	수 출	7.9	10.0	14.6	1.0	-3.1
	수 입	4.3	14.1	16.8	-0.3	10.9
주가지수 ²⁾	2,265.90	2,236.62	2,177.91	2,300.60	1,979.21	2098.38

주 : 1) 전월대비, 2) 상해 종합주가지수, 기말기준.

자료 : 월간경제동향(2013.8), 기획재정부

중국의 수출입 추이

(단위 : %, 전년동월대비)



3. 일본

- 일본 경제는 2013년 2/4분기 GDP성장률 0.6%(전기대비)를 나타냄
- 7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2.2%, 수입은 19.6% 각각 증가
 - 수출은 2월 증가세 반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입 역시 높은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음
- 7월 산업생산은 전월대비 3.2% 증가, 소매판매는 전년동월대비 1.8% 감소
- 7월 소비자물가는 전월대비 0.1%, 6월 생산자물가는 0.1% 각각 상승
 - 일본의 물가는 2012년 하반기이후 안정적인 모습
- 실업률은 3.8%를 나타내며 전월보다 0.1%p 하락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 %,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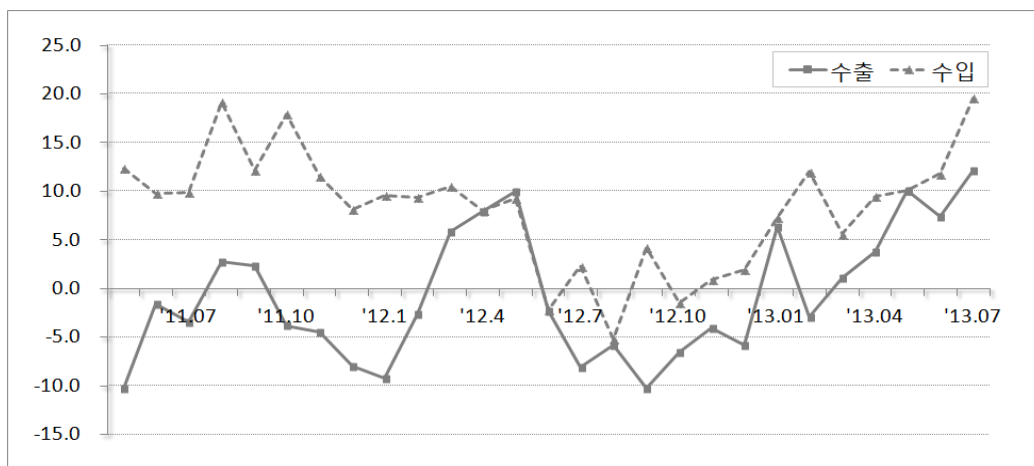
구분		2012년	2013년 ^P				
		연간	3월	4월	5월	6월	7월
산업생산 ¹⁾		-0.3	0.1	0.9	1.9	-3.1	3.2
소매판매 ¹⁾		1.8	-1.5	0.6	1.5	-0.2	-1.8
물가	생산자 ²⁾	-0.8	0.1	0.4	0.0	0.1	-
	소비자 ³⁾	0.0	0.2	0.3	0.1	0.0	0.2
무역	수출	-2.8	1.1	3.8	10.1	7.4	12.2
	수입	3.8	5.6	9.5	10.1	11.8	19.6
실업률 ⁴⁾		4.4	4.1	4.1	4.1	3.9	3.8
주가지수 ⁵⁾		10,395	12,398	13,861	13,775	13,677	13,668

주 : 1) 전월대비, 광공업, 2005=100 2) 전기대비, 2010=100 3) 전기대비, 2005=100 4) 계절변동조정, 당월수치 5) 일경평균주가, 기말기준

자료 : 월간경제동향(2013.8), 기획재정부

일본의 수출입 추이

(단위 : %, 전년동월대비)



4. 유로지역

- 유로지역 경제는 2013년 2/4분기 GDP성장률 0.3%(전기대비)를 나타냄
- 6월 산업생산은 전월대비 0.7% 증가,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0.5% 감소
 - 산업생산지수가 소폭 증가하였으며, 제조업 PMI(구매자관리지수)가 지난달에 이어 기준치 50을 상회하고 있음(7월 50.3, 8월 51.4)
- 6월 수출은 전월대비 3.0%, 수입은 2.5% 각각 증가
- 6월 실업률은 12.1%를 나타내며 전월과 동일
 - 실업률이 '11.5월부터 증가세로, 매월 12%의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어 고용사정이 쉽게 개선되지 않음

유로지역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 %, 전월대비)

구분		2012년	2013년 ^p				
		연간	3월	4월	5월	6월	7월
산업생산 ⁽¹⁾		-2.4	0.9	0.4	-0.3	0.7	-
소매판매		-1.9	-0.1	0.0	1.1	-0.5	-
물가 ⁽²⁾	생산자	2.9	-0.2	-0.6	-0.3	0.0	-
	소비자	2.5	1.2	-0.1	0.1	0.1	-0.5
무역	수출	7.1	2.6	-1.1	-2.6	3.0	-
	수입	1.6	-1.1	0.8	-2.1	2.5	-
실업률 ⁽³⁾		11.4	12.1	12.1	12.1	12.1	12.1
주가지수 ⁽⁴⁾		2,635.9	2,624.00	2,712.00	2,769.60	2,602.60	2,768.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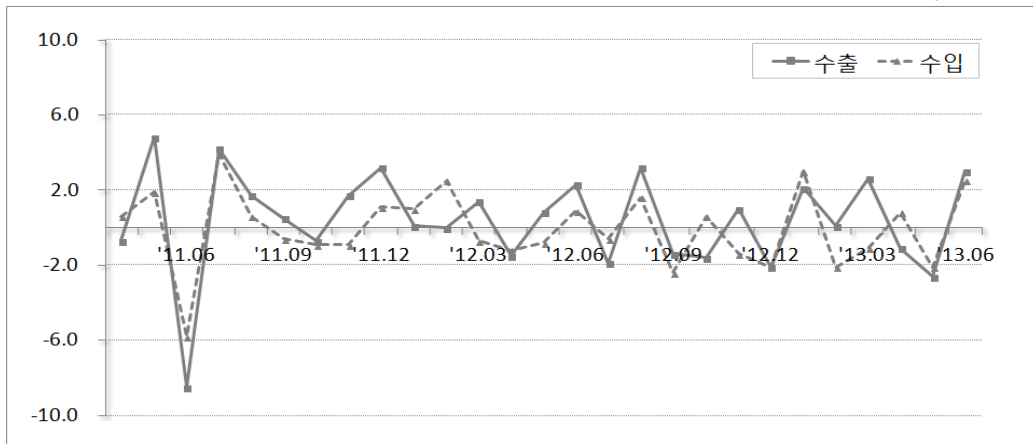
주 : 1) 전산업(건설업 제외) 2) 전기대비, 생산자물가는 건설업 제외, 소비자물가는 종합소비자물가지수(HICP)기준

3) ILO 기준, 계절변동 조정후 4) Dow Jones EURO STOXX 50 Index, 기말기준.

자료 : 월간경제동향(2013.5), 기획재정부

유로지역의 수출입 추이

(단위 : %, 전월대비)





Chungnam Economic Trends

경제일지



충남경제일지

[' 13. 8. 22.] 충남도 추석 물가관리 팔 건었다

- 9월 3~17일 제수용 성수품 및 주요 개인서비스요금 중점관리 -
- 충남도는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9월 3일부터 9월 17일까지 제수용 성수품 및 주요개인서비스요금 안정을 위해 '추석대비 물가안정대책'을 추진
 - 이를 위해 도는 20개 제수용 성수품과 10개 개인서비스요금을 중점관리 대상품목으로 정하고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추진상황과 가격동향 등을 매일 점검
 - 중점관리 성수품 20개 품목은 ▲사과, 배, 밤 배추, 양파, 파, 고추, 마늘, 농산물 8종 ▲조기, 명태, 오징어, 김 수산물 4종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축산물 4종 ▲참기름, 콩기름, 두부, 밀가루 공산품 4종으로, 도는 성수품의 가격안정을 위해 직거래 장터, 할인판매를 확대 운영하는 등 적극 대처
 - 도는 또 '물가안정 책임관'을 위촉해 일일가격조사 등 현장위주의 물가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도와 각 시·군, 소비자단체 합동으로 지도 점검반을 편성해 9월 4일부터 3일간 가격표시제 이행여부와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해 특별지도점검
 - 이와 함께 도는 이·미용료, 목욕료, 노래방·당구장 이용료 등 10개 개인서비스 요금에 대해 사업자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기습인상을 자제를 유도하고,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한 '할인·착한가격업소 이용하기' 등 민간 물가견제 기능을 최대한 살려 나가기로 함
 - 도 관계자는 "매점매석과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 적발시 해당기관에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며 "도민들이 즐거운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알뜰 구매정보를 제공해 합리적인 소비문화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함

[' 13. 8. 26.] 충남 수출 '거침없는 질주'

- 1~7월 365억4900만\$ 전년대비 6% 증가...하반기 순항 예고 -
- 전국은 0.9% 증가 그쳐...무역수지 흑자 166억\$ 전국 2위 유지 -
- 올해 충남도 내 수출액이 365억 달러를 넘어서며 하반기 수출도 거침없는 질주를 시작
 - 26일 도에 따르면, 지난 1~7월 도내 총 수출액은 365억49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

간 344억7100만 달러에 비해 6.0%(20억7800만 달러) 증가 * 자료 : 한국무역협회

- 같은 기간 전국 수출은 3224억1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3196억4400만 달러에 비해 0.9%(27억5700만 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
- 또 도내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 199억3500만 달러보다 0.1%(2200만 달러) 감소한 199억1300만 달러로 기록
- 이에 따라 도내 무역수지 흑자액은 지난 같은 기간 145억 달러보다 14.5%(21억 달러) 늘어난 166억3600만 달러로 전국 2위를 유지
- 수출증가율이 가장 큰 품목은 무선통신기기로 185.5%를 기록했으며, 기구부품(152.1%)과 석유화학중간원료(94.5%)와 전자응용기기(28.0%), 자동차 부품(13.2%) 등이 뒤를 이음
- 반면 석유제품은 중국과 일본에 대한 수출 부진으로 12.3% 감소하고, 자동차 수출액도 13.4% 줄었으나, 반도체는 1.2% 증가세로 돌아섬
- 수출액은 ▲반도체가 91억8600만 달러로 1위를 기록했으며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65억2700만 달러 ▲전자응용기기 32억100만 달러 ▲석유제품 28억8900만 달러 ▲석유화학중간원료 21억1000만 달러 ▲컴퓨터 14억5500만 달러 ▲자동차부품 14억 4100만 달러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국가별로는 중국(16.3%), 미국(13.8%), 베트남(18.7%) 지역은 수출이 증가했으나, 일본, 싱가포르, 홍콩 지역은 12.9~18.4% 가량 감소
- 특히 최근 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이란에 대한 수출은 지난 6월20.2% 감소한데 이어 지난달에도 46.7% 감소
- 국가별 수출액은 ▲중국이 170억1700만 달러로 가장 많고 ▲홍콩 42억1600만 달러 ▲미국 29억800만 달러 ▲대만 19억1600만 달러 ▲일본 17억3300만 달러 ▲베트남 14억 3600만 달러 등의 순으로 집계
- 최운현 도 경제통상실장은 “이란에 대한 제재 강화와 엔저 장기화 지속 등 최근 대외 여건은 불리한 상황”이라며 “그러나 상반기 수출 탄력세를 이어가고, 남은 기간 신흥시장 중심으로 해외 마케팅 사업을 적극적으로 편다면 올해 수출 목표(630억 달러)는 무난히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 한편 도는 중국과 동남아 시장에 대한 수출 확대를 위해 오는 10월 말 홍콩에서 도내 유망 수출기업 32개사가 참가한 가운데 ‘충남우수상품 전시·상담회’를 개최하고, 11월에는 우수 바이어를 국내로 초청해 도내 유망 수출기업간 1대 1 수출상담 기회를 제공할 예정

[' 13. 8. 28.] 고도기술 외투기업 충남경제 발전 이끈다

- 디스플레이·반도체 등 맹활약...상반기 무역흑자 141억불 견인 -

- 충남도의 올해 상반기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141억3200만 달러를 기록. 이는 도가 전략적으로 유치한 고도기술 외투기업의 성장세에 힘입은 것으로 지속된 국제경기 침체에도 하반기 무역수지 전망을 밝게 하고 있음
- 도는 올해 상반기 도내 무역수지 동향을 분석한 결과 도내 무역흑자 규모는 전년 동기 에 비해 19.8% 늘어난 141억3200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힘
- 도내 상반기 무역흑자는 수출증가에 따른 것으로, 품목별로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전자응용기기 ▲석유화학중간원료 ▲자동차부품 순으로 수출이 증가
- 특히 디스플레이, 반도체, 자동차부품 분야의 수출 성장세는 도가 전략적으로 투자유치 한 고도기술 외투기업의 도내 생산활동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
- 현재 도내에는 일본 우베코산 폴리이미드(플렉시블 디스플레이), 무로후시(베어링 리테 이너), 아드반테스트(반도체 테스트), 벨기에 유미코아(리튬2차전지 소재), 오스트리아 마그나(자동차 커플링) 등 고도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들이 입지해 국내 대기업의 수출제품에 부품 및 소재를 공급하고 있음
- 이들 고도기술 기업은 완성제품의 생산공정에 사용되는 핵심 장비 및 부품소재를 생산 하는 기업으로, 이들 외투기업의 완제품 수출과 부품소재 수입대체효과, 간접수출효과 에 따른 무역수지 개선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
- 천안 소재 반도체기업 관계자는 “통상 신제품을 연구단계에서 실제 개발·양산하는 데에 는 최소 2년 이상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면서 “충남도의 적극적인 유치로 외투기업의 기술이 시의적절하게 보급돼 우리나라 제품의 국제경쟁력 확보가 가능했다”고 설명
- 이와 함께 도내 주력산업인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분야에는 고도기술을 보유한 외투기 업 외에도 에드워드(영국), ASM(네덜란드) 등의 장비업체와 다우케미컬(미국) 등의 소 재업체가 천안지역을 중심으로 포진해 생산활동을 하고 있음
- 또 자동차 분야에서는 일본의 태평양공업, 현대산업 등이 아산지역에서 공장을 운영 중 으로, 이들 외투기업의 직접적인 생산효과 이외에도 집적효과를 노린 다른 기업의 투 자가 이어지고 있어 충남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이동구 도 투자입지과장은 “천안·아산지역 외에도 서산, 예산지역에도 독일·미국·일본· 영국 등의 고도기술 부품소재기업들의 투자 문의가 계속되고 있다”며 “도내에서 생산 되는 수출품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전개해 나갈 계 획”이라고 밝힘

[표1] 도내 고도기술 외투기업 현황

기업명	국가	고도기술 분야	소재지
아드반테스트	일본	반도체 테스트 장비	천안
유미코아	벨기에	리튬2차전지 소재	천안
마그나	오스트리아	자동차 전자식 커플링	아산
우베코산	일본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소재	아산
무로후시	일본	고속·고하중 베어링 리테이너	천안
코닝	미국	디스플레이용 유리	아산

[' 13. 8. 28.] 고용서비스 제고 위한 현장 목소리 듣는다

- 8월 28일 제3차 충남고용포럼...학계 전문가 등 50여명 참석 -
- 충남도는 28일 천안컨벤션센터에서 도내 학계 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지역의 고용서비스 제고를 위한 2013년 제3회 충남고용포럼을 개최
 - 이날 포럼은 ‘베이비부머와 정년연장의 과제’와 ‘중소기업 근로시간 실태와 정책과제’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
 - 제1주제인 ‘베이비부머와 정년연장의 과제’에 대해서는 안주엽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지난 1982년 7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우리나라 연령별·계층별 고용실업 현황 연구결과를 발표
 - 이 자리에서 안 위원은 “청년층과 관련층간에 직종분담이 이뤄져 있어 대체 관계에 있다가보다는 보완관계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기업에서는 중고령층 고용유지 및 재고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근로자는 평생학습을 통한 지속적인 인적자원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
 - 이어 제2 주제 발제자로 나선 조세형 박사(주CNP컨설팅 대표)는 “장시간 근로관행이 조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경영활동을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개한다면 근무형태의 변경, 인사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할 수 있다”고 말함
 - 참석자들은 주제 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서 도내 중소기업 고용개선을 위해서는 HRD사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위한 활성화 방안으로 충남지역 기업의 업종별 협의체 구성과 고용관련 자료와 의견의 활발한 공유를 위한 충남고용포털사이트 구축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

- 도 관계자는 “이번 포럼을 통해 논의된 정책 과제들을 관련기관에 건의해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고용정책이 수립·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충남의 고용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함

[' 13. 8. 28.] 탕정제1·현대대죽산단 환경영향평가 주민참여

- 환경영향평가 협의회...환경갈등 최소화 등 기대 -
- 충남도는 8월 28일 소회의실에서 탕정 제1일반산업단지와 현대대죽일반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을 위해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개최
 - 도에 따르면, 이번 환경영향협의회는 지난해 7월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주민대표와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해 발족한 것으로, 도는 주민참여로 인해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 이번 협의회는 심의대상인 탕정 제1일반산업단지는 (주)동아토건에서 총사업비 2479억원을 들여 오는 2018년까지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일원에 57만2892㎡ 규모로 신규로 조성될 예정으로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체 등이 들어섬
 - 또 현대대죽 일반산업단지는 현대오일뱅크(주)에서 총사업비 1940억원을 들여 오는 2017년까지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일원에 67만2528㎡ 규모로 조성 중에 있으며 코크스 연탄 석유정제품제조업 등이 입지할 예정
 - 이날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은 오는 9월 3일부터 결정내용을 공개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할 계획
 - 협의회 위원장인 최운현 경제통상실장은 “이번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산업단지 계획 수립시부터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자리”라며 “오늘 협의회 중 현대대죽 일반산업단지는 대산석유화학단지의 특성을 감안해 해당지역 민간위원을 통상 2명에서 4명으로 확대 구성하는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말함

[' 13. 8. 29.] 충남인 2명 대한민국 명장에 선정

- 신우영 · 손일만 명장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 보유 기술자 영예 -
- 충남도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선정한 ‘올해의 대한민국 명장’에 현대제철(주) 신우영 기장과 손일만 기감 등 2명의 충남인이 선정됐다고 29일 밝힘
 - 숙련기술 분야의 최고의 상인 대한민국 명장에 선정된 2명은 신우영 기장과 손일만 기감으로 두 명장 모두 현대제철(주)에서 근무 중
 - 신우영 기장은 기계정비 직종의 명장으로 선정됐으며 해당분야에 23년 넘게 근무하면

- 서 특허등록 및 실용신안 출원과 품질분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공로를 인정받음
- 손일만 기감은 소성가공 직종의 명장으로 선정됐으며 해당분야에 33년 넘게 근무하면서 초대형 금속압연공장 건설 등 금속압연분야 업무를 탁월하게 수행해 온 것으로 알려짐
- 대한민국 명장 선정자에게는 내달 2일 직업능력의 달 기념식에서 대통령 명의 증서와 명패, 휘장이 수여될 예정이며 일시장려금과 계속종사장려금도 함께 지원

[' 13. 9. 1.] 팍팍한 경제, 서민 목소리부터 챙긴다

- 안희정 지사, 이달부터 소상공인 등 ‘기업·민생현장 탐방’ 돌입 -
- 세계 경기침체 장기화와 내수부진 등으로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저변의 목소리 청취에 나선다
-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지역경제 5대 분야 정책토론회를 차례로 개최하고,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 등 민생현장을 방문하는 등 ‘기업·민생현장 탐방’을 진행
- 기업·민생현장 탐방 첫 일정은 소상공인 정책토론회로, 3일 오후 공주 한옥마을에서 충남 소상공인연합회 회원과 지역 소상공인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림
- 이날 토론회에서 안 지사는 도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설명한 뒤, 소상공인들의 가감 없는 목소리를 듣고 정책적 해결방안을 모색
- 다음 달 4일 태안 천리포수목원에서 열리는 전통시장 정책토론회에는 전통시장연합회 임원 등 150여명이 참석할 예정으로, 도의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 발표와 토론 등이 진행됨
- 이와 함께 중소기업 정책토론회는 11월 14일 온양관광호텔에서 도내 중소기업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벤처기업 정책토론회는 같은 달 27일 충남북부상공회의소에서, 농공단지 입주자 정책토론회는 12월 3일 예산농공단지에서 각각 마련할 예정
- 안 지사는 특히 정책토론회에 맞춰 현장방문도 진행할 계획으로, 3일 소상공인 정책토론회 이후에는 공주지역 밤과자 제조판매업소를 찾고, 다음 달 전통시장 정책토론회 이후에는 태안서부시장을, 11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정책토론회 이후에는 인근 기업체를 각각 찾아 현장시설을 살피고 근로자 등과 대화를 나눌 예정
- 민생탐방은 시·군 지역 방문과 연계 추진할 방침으로, 주로 정기시장을 찾아 상인을 격려하고 어려움을 들을 예정이며, 경제·노동계 간담회는 경제기관·단체, 한국·민주노동당과 수시로 만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지역 경제정책에 대해 토론
- 중소기업 탐방은 국내 유치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 향토기업 등을 찾아 중소기업 정책 설명과 토론을 가질 예정이며, 최고경영자 과정 등에서의 특강도 추진
- 도 관계자는 “기업·민생현장 탐방은 다양한 경제 주체와의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 지역

경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번 탐방에서 나온 목소리는 도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

[13. 9. 2.] 충남도 추석절 중소기업 경영난 해소를 위해 98억원 특별지원

- 도내 중소기업 49개업체에 경영안정자금 최대 2억원까지 지원 -
- 충남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경영안정자금으로 도내 49개 업체에 98억원을 특별융자 지원한다고 2일 밝힘
- 특별융자 지원 대상은 도의 경영안정자금을 융자 한도액까지 지원받아 상환 중인 기업이며, 최대 지원금액은 2억원
- 다만 설·추석 특별 경영안정자금을 이미 융자 지원받아 상환 중이거나 상환 후 1년이 넘지 않은 기업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
- 융자 금리는 금융기관별 여신 규정과 업체의 신용도·담보 능력에 따라 차등 결정되며, 융자조건은 2년거치 일시상환으로 도에서는 기업과 금융기관간 결정된 금리에서 2.0%의 이자를 지원
- 지원대상에 선정된 업체는 9. 3.(화)부터 시중은행 12개 협약 금융기관에서 3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으면 됨
- 도에 따르면 이번 특별융자 지원은 근로자 임금 지급과 원·부자재 구입대금 등 일시적 자금수요 급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힘

[13. 9. 6.] 충남도 외투기업간 네트워크 강화지원

- 6일 사례로 알아보는 노동관계 법령·이슈 교육, 자유투 네트워크 실시 -
- 충남도는 6일 아산 제일호텔에서 도내 외국인투자기업 인사·노무·경영지원담당자 30여명을 대상으로 ‘2013년 신설 및 개정된 노동관계 법령 및 노동계 이슈 관련 노무교육’을 실시
- 충남도가 주최하고 충남외국인투자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교육은 도내 외국인투자기업 인사·노무·경영지원 담당자의 실무역량 향상은 물론, 외투기업 상호간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고 외투기업 지원사업 소개를 통해 기업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
- 교육의 주요내용은 ▲개정 노동법 ▲통상임금 ▲비정규직 ▲산업 안전 등으로 공인노무사가 교육을 진행했으며 외투기업 지원사업 관련 협조 및 당부 사항으로 마무리

- 도 관계자는 “이번교육을 통해 외투기업들 상호간 교류가 활발해지고 서로 친목을 도모함으로써 도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함

[' 13. 9. 8.] 도 지정 선도기업 · 유망중소 성장세 지속

- 지정때보다 매출액 50%·종업원 20% 신장...영예로운 졸업도-
 - 충남도가 우수중소기업 육성시책의 일환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선도·유망중소기업’들이 매출과 고용 면에서 뚜렷한 성장세를 이어온 것으로 나타남
 - 도가 지난달 선도·유망중소기업 170업체(선도 24·유망 146)에 대한 경영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들 기업의 지난해 말 매출액은 총 2조1959억원으로 지정당시보다 50%(7312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
 - 특히 선도기업의 경우 지정당시 매출 2359억원보다 78%(1841억원) 증가한 4200억원, 유망중소기업은 지정당시 매출 1조2289억원보다 45%(5471억원) 증가한 1조7760억원의 매출액을 기록
 - 선도기업 중 매출액 최고 신장 기업은 아산에 위치한 영화테크(주)로 1768%(413억원) 신장을 기록했다. 유망중소기업 중에서는 금산에 위치한 대동고려인삼(주)가 522%(170억원)가량 매출이 늘어 최고 신장기업으로 나타남
 - 또 선도기업 24업체 중 ▲1999년 공주 (주)동해기계항공 ▲2004년 홍성 (주)에스에프씨 ▲2006년 아산 영화테크(주) ▲2008년 서천 알프스식품(주) 등 4개 업체가 가파른 성장으로 지난해 말 매출액이 선도기업 지정 기준범위(300억원)를 초과해 9월말 영예로운 졸업을 하게 됨
 - 매출 신장에 따라 종업원 수도 증가해 선도기업은 지정 당시 1372명에서 지난해 말 1774명으로 29%(402명) 증가했고, 유망중소기업은 지정 당시 5031명에서 지난해 말 5931명으로 18%(900명) 증가 추세를 보임
 - 종업원 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기업은 선도기업에서는 395%(158명)이 증가한 아산 영화테크(주)로 매출액과 더불어 높은 성장세를 보였으며, 유망중소기업에서는 홍성 (주)솔피F&C가 967%(29명) 증가한 것으로 조사
 - 이와 함께 선도·유망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정에 대한 성과를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들 기업은 ▲기업이미지 향상 ▲자금지원 ▲정부공모사업 우대 등을 효과가 있었다고 답변
 - 도 관계자는 “국내외 경제 불황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경제의 선도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기업 애로사항 해소 등 철저한 사후관리와 함께,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 한편, 선도기업은 고부가가치형 기술을 보유한 매출 300억원 미만의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년에 한차례씩 지정하는 것으로, 도는 지난 2010년 지정을 마지막으로 지정 업체들을 관리해오고 있음

- 또 유망중소기업은 도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종업원수 300인 미만의 기업을 매년 발굴 지정·관리하는 것으로, 도는 이들 업체에 자금, 판로, 인력 등 각종 지원사업을 우선적 지원
- 선도기업과 유망중소기업은 2012년 2월 조례 개정으로 지정대상과 지원혜택이 비슷해짐에 따라 하나로 통합되어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이미 지정된 선도기업은 지정연도부터 6년 동안 관리하고, 기간이 경과한 기업의 경우 2년간의 유예기간 두고 졸업하게 됨

[' 13. 9. 8.] 공정한 상거래를 위한 저울류 특별점검

- 도, 추석명절 대비 대형마트 · 전통시장 등 저울류 점검 -
 - 충남도는 제수용 및 일반 생활용품이 다량 거래되는 추석을 앞두고 9일부터 12일 까지 4일간 도내 전역에서 시·군 담당자와 저울류 교차 합동점검을 실시
 - 도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불법계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공정하고 정확한 상거래를 통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진행
 - 점검 대상은 제수용품이 다량 거래되는 대형마트, 전통시장, 정육점, 식품점, 양곡상, 청과상, 농·수산물시장을 중심으로 가격결정에 사용되는 접시 지시저울, 전기식 지시저울 등 각종 상거래용 저울임
 - 점검 내용은 ▲사용공차 초과여부 ▲계량기변조 및 봉인상태 ▲영점조정상태 ▲검정 및 정기검사 실시여부 ▲비법정 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 사용 행위 ▲기타 계량법령 위반행위 여부 등
 - 도는 정기검사 미필과 유리파손 등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검정 미필 계량기 변조 등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
 - 도는 지난 설 명절 기간 실시한 점검에서 31개 업소, 33건이 단속돼 시정조치 및 과태료처분을 받은 바 있음
 - 도 관계자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들도 빈 저울이 수평을 유지하고 바늘이 0점에 있는지를 확인해 불법·불량 저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함

[' 13. 9. 10.] “중소기업, 이제 안심하고 수출하세요!”

- 道, 단기수출보험 가입희망 업체 모집...수출대금 미회수시 보상 -

- 충남도는 도내 영세 중소기업의 수출확대를 위해 수출대금 미회수 등의 위험으로부터 도내 중소기업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중소중견Plus+ 단체보험’에 가입을 추진
 - 도에 따르면 ‘중소중견Plus+ 단체보험’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수출위험(수입자, 신용장, 수입국)으로부터 수출대금 미회수를 담보해주는 상품으로, 향후 1년간 수출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5만불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
 - 도는 도내에 본사와 공장을 두고 있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단체보험 가입 희망업체를 선착순 모집해 보험계약자로서 일정 자격을 충족하는 도내 영세 수출기업을 피보험자로 단체보험에 대한 가입을 추진
 - 도는 이번 단체보험 가입이 일본 엔화강세, 이집트, 인도 등 신흥시장의 경제위기로 인한 도내 중소수출기업의 수출대금 미회수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주요 민간 기관 · 단체 경제리포트

- 삼성경제연구소(CEO 인포메이션, SERI경제포커스) : <http://www.seri.org>
 - 韓·中·日 교역구조 재평가
 - 고착화된 일본의 무역적자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사용자 체험 혁신 전략
 - 중국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리코노믹스
 - 스포츠화 경쟁史로 보는 과점시장 생존법
- 현대경제연구원 : <http://hri.co.kr>
 - 미국 출구전략과 파급영향
 - 한국·베트남 신뢰 회복의 성공 요인과 시사점
 - 중국 경기 낙관론 확산
 - 위험관리와 보험 - 보험의 이해와 보험기관
 - SOC 과소투자 우려된다
- LG경제연구원 : <http://www.lgeri.com>
 - 외국인 채권투자 유입 추세, 낙관은 금물
 - 중국, 소비시장의 트렌드 세터, '스마트 바이링'
 - 유로존, 체제 존속 가능성 높아졌으나 경기회복 강도는 약할 듯
 - 통화축소 시험대 앞에 선 신흥국, 펀더멘탈로 본 취약성
 - 실리콘밸리 해법으로 본 한국형 창업 방정식
- 한국은행 : <http://www.bok.or.kr>
 - 해외경제포커스(제 2013-37호)
 - BOK 경제연구 제 2013-21호
 - 국내 RP 결제리스크 요인 분석 및 시사점
 - 엔/달러 환율의 변동요인 분석 및 향후 여건 점검
 - 일본 소비세율 인상의 필요성 및 파급 영향
 - 한국은행 지역경제보고서(창간호)

※ 상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Chungnam Economic Trends

경제지표



1. 국내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국내총생산 (GDP) ¹⁾	억원	9,750,130	10,264,518	10,650,368	11,732,749	12,351,605	12,724,595
국민총소득 (GNI) ¹⁾	억원	9,768,139	10,341,154	10,697,831	11,747,530	12,384,053	12,795,464
1인당 GNI ¹⁾	만원	2,010	2,113	2,175	2,378	2,488	2,559
경제성장률 ²⁾	%	5.1	2.3	0.3	6.3	3.7	2.0
산업구조	—						
농림어업	%	2.9	2.7	2.8	2.6	2.7	2.6
광공업		27.5	28.1	28.0	30.5	31.5	31.3
전기가스·수도사업		2.2	1.3	1.8	2.0	1.9	2.1
건설업		7.4	7.0	6.9	6.3	5.9	5.8
서비스업 및 기타		60.0	60.8	60.4	58.5	58.0	58.2
제조업 평균가동률	%	80.3	77.6	74.4	80.3	80.2	78.1
취업자	천명	23,433	23,577	23,506	23,829	24,244	24,681
농림어업	%	7.4	7.2	7.0	6.6	6.4	6.2
광공업		17.2	16.9	16.4	17.0	16.9	16.7
건설업		7.9	7.7	7.3	7.4	7.2	7.2
서비스업 및 기타		67.6	68.3	69.3	69.1	69.5	69.9
실업률	%	3.2	3.2	3.6	3.7	3.4	3.2
경상수지		21,770	3,198	32,790	29,394	26,068	43,139
상품수지 (FOB)	백만 달러	37,129	5,170	37,866	40,082	31,660	38,338
서비스수지		△11,967	△5,734	△6,641	△8,626	△5,850	2,676
본원소득수지		135	4,435	2,277	1,016	2,891	4,886
이전소득수지		△3,527	△674	△712	△3,079	△2,633	△2,761
수출액	억달러	3,715	4,220	3,635	4,664	5,552	5,479
수입액		3,568	4,353	3,231	4,252	5,244	5,196
총저축률	%	30.8	30.5	30.2	32.1	31.6	30.8
민간비중	%	20.2	21.2	23.4	24.7	23.9	23.4
정부비중		10.6	9.3	6.8	7.4	7.7	7.4
총자본형성 ³⁾	십억원	277,729	277,773	240,412	278,359	282,324	277,336
최종소비지출	%	69.1	70.0	70.1	67.8	68.4	69.3
민간비중	%	54.4	54.7	54.1	52.6	53.1	53.5
정부비중		14.7	15.3	16.0	15.2	15.3	15.8
생산자물가상승률	%	1.4	8.6	-0.2	3.8	6.7	0.7
소비자물가상승률	%	2.5	4.7	2.8	3.0	4.0	2.2

주 : 1) 당해년 가격. 2) 실질성장률. 3) 자본재형태별 (원계열, 실질)

자료 : 한국은행(www.bok.or.kr), 통계청(www.kosis.kr),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일일경제지표 (2013.9.2기준)

금리

(%p)

구 분	'11말	'12말	'13.7말	8.29	8.30	9.2	전일비	'12말비
콜금리(1일)	3.27	2.75	2.51	2.50	2.50	2.51	0.01	△0.24
CD(91일)	3.55	2.89	2.66	2.66	2.66	2.66	0.00	△0.23
국고채(3년)	3.34	2.82	2.92	2.91	2.88	2.92	0.04	0.10
국고채(5년)	3.46	2.97	3.20	3.21	3.17	3.21	0.04	0.24
회사채(3년, AA-)	4.21	3.29	3.36	3.28	3.25	3.29	0.04	0.00
외국인채권순매수(상장, 억원)	412,343	379,835	39,230	△243	506	929	423	-

※ '11말('11.1.1~'12.3.1), '12말('12.1.1~'12.3.1), '13.7말('13.7.1~'13.7.31), 기타 당일, 16시 기준 잠정치.

주가

구 분	'11말	'12말	'13.7말	8.29	8.30	9.2	전일비	'12말비(%)
KOSPI지수	1,825.74	1,997.05	1,914.03	1,907.54	1,926.36	1,924.81	△0.08%	△3.62%
·거래대금(억원, 일평균)	36,321	32,991	40,821	47,946	51,063	33,937	△17,126	-
KOSDAQ지수	500.18	496.32	554.31	520.37	516.74	525.18	1.63%	5.81%
외국인 순매수(억원, 기간중)	△95,732	176,293	13,480	4,436	4,362	792	△3,570	-

※ 기간 중 : '11말('11.1.1~'12.3.1), '12말('12.1.1~'12.3.1), '13.7말('13.7.1~'13.7.31), 기타 당일, 16시 기준 잠정치.

환율

구 분	'11말	'12말	'13.7말	8.29	8.30	9.2	전일비(%)	'12말비(%)
₩/US\$	1,151.80	1,070.60	1,123.50	1,109.70	1,110.00	1,100.50	△0.86	2.79
선물환(NDF, 1월물)	1,154.70	1,072.80	1,125.70	1,112.10	1,112.30	1,102.60	△0.87	2.78
₩/CNY	182.29	171.80	183.25	181.28	181.37	179.89	△0.82	5.27
₩/EUR	1,488.93	1,417.47	1,488.86	1,477.12	1,469.64	1,453.87	△1.07	2.57
₩/¥100	1,481.22	1,238.26	1,147.95	1,134.78	1,130.58	1,116.47	△1.25	△9.84
¥/US\$	77.76	86.46	97.87	97.79	98.18	98.57	0.40	14.01
US\$/EUR	1.2927	1.3240	1.3252	1.3311	1.3240	1.3211	△0.22	△0.22
CNY/US\$	6.3248	6.2304	6.1305	6.1211	6.1204	6.1164	△0.07	△1.83

※ '12년 평균 환율 : (₩/US\$) 1,126.8원 (₩/¥100) 1,414.0원 ※ '13년 평균 환율 : 13.1.1~현재 : (₩/US\$) 1,103.5원 (₩/¥100) 1,152.3원

국제금리 · 주가 · 가산금리

구 분	'11말	'12말	'13.7말	8.29	8.30	9.2	전일비	'12말비
LIBOR(Dollar, 3월, %)	0.58	0.31	0.28	0.26	0.26	-	0.00	△0.05
T/NOTE(10년, %)	1.88	1.76	2.59	2.79	2.76	-	△0.03	1.00
DOW	12,218	13,104	15,500	14,841	14,810	-	△0.21%	13.02%
NIKKEI	8,455	10,395	13,668	13,460	13,389	13,573	1.37%	30.57%
SANGHAI COMP	2,199	2,269	1,994	2,097	2,098	2,098	0.00%	△7.52%
외평채가산금리(bp, '14년물)	165	63	73	57	55	-	△2	△8
CDS(5년, bp)	161	67	88	84	85	85	0	18
CRS(1년, %)	2.05	2.22	1.74	1.96	1.97	1.92	△0.05	△0.30

유가 · 곡물 · 원자재

구 분	'11말	'12말	'13.7말	8.28	8.29	8.30	전일비(%)	'12말비(%)
DUBAI (\$/배럴)	104.89	107.81	104.29	111.65	112.99	111.78	△1.07	3.68
WTI 선물 (\$/배럴)	98.83	91.82	105.03	110.10	108.80	107.65	△1.06	17.24
Brent 선물 (\$/배럴)	107.38	111.11	107.70	116.61	115.16	114.01	△1.00	2.61
원당 (센트/파운드)	23.3	19.51	16.97	16.44	16.37	16.34	△0.18	△16.25
밀 (센트/부셸)	653	778	664	647	641	643	0.31	△17.32
콩 (센트/부셸)	1,208	1,410	1,374	1,373	1,369	1,358	△0.80	△3.69
옥수수 (센트/부셸)	647	698	499	481	482	482	0.10	△30.97
동 (\$/톤)	7,570	7,930	6,805	7,236	7,211	7,095	△1.60	△10.53
알루미늄 (\$/톤)	1,992	2,072	1,732	1,827	1,798	1,776	△1.25	△14.29

※ '12년 평균 유가 : (Dubai) 109.03\$, (WTI선물) 94.18\$, ※'13년 평균 유가 : 13.1.1~현재 : (Dubai) 104.55 (WTI 선물) 97.23\$, 자료 : 일일경제지표,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

2. 충남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P
지역내총생산(GRDP) ¹⁾	억원	551,484	579,740	651,338	763,538	848,817	- ⁴⁾
전국대비 구성비 ¹⁾	%	5.66	5.65	6.12	6.51	6.84	-
GRDP 성장률 ²⁾	%	7.1	6.2	5.4	12.0	5.0	-
1인당 GRDP	백만원	27.97	28.82	31.95	36.79	40.34	-
산업구조 ³⁾	-						-
농림어업	%	6.7	6.3	5.7	5.1	4.6	-
광공업		45.6	46.6	50.7	54.5	57.4	-
전기가스수도업		4.4	2.5	3.4	3.8	3.7	-
건설업		8.7	9.3	8.1	7.5	7.0	-
서비스업 및 기타		34.7	35.3	32.0	29.2	27.3	-
15세이상인구	천명	1,547	1,564	1,588	1,613	1,643	1,717
경제활동인구	천명	1,021	996	991	1,003	1,025	1,080
취업자	천명	998	973	961	974	1,001	1,056
농림어업	%	21.9	19.5	18.8	16.8	16.3	15.1
광공업		17.0	17.4	17.1	19.0	20.4	20.2
건설업		6.6	5.7	5.8	5.6	6.4	6.6
서비스업 및 기타		54.5	57.3	58.3	58.5	57.0	58.1
실업자	천명	23	24	29	29	24	25
비경제활동인구	천명	526	568	597	610	618	637
경제활동참가율	%	66.0	63.7	62.4	62.2	62.4	62.9
실업률	%	2.2	2.4	3.0	2.9	2.3	2.3
고용률	%	64.5	62.2	60.5	60.4	60.9	61.5
무역수지	백만달러	21,149	13,380	20,299	29,161	26,314	28,523
수출액	백만달러	47,823	42,936	39,428	54,054	59,954	62,031
수입액		26,674	29,556	19,129	24,893	33,640	33,509
소비자물가상승률	%	2.5	4.9	2.7	3.0	4.1	2.4

주 : 1) 당해년가격 2) 연쇄지수(2005=100) 3) 당해년가격, 총부가가치(기초가격) 기준, 4) -는 통계수치발표 이전임
 자료 : 통계청(www.kosis.kr),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충남 시군별 지역내총생산

(당해년가격, 억원)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천안시	86,154	101,531	114,378	129,482	136,363	138,471	162,116	179,708
공주시	17,003	18,295	19,107	19,595	21,019	21,492	23,473	25,823
보령시	20,535	20,604	20,610	21,462	23,002	19,690	22,149	24,708
아산시	89,588	101,957	108,960	115,255	125,426	126,325	161,532	213,087
서산시	41,614	49,192	53,512	62,102	66,045	81,233	76,993	90,522
논산시	16,772	17,544	18,944	19,932	20,783	20,403	22,735	25,239
계룡시 ¹⁾	2,726	3,058	3,195	2,947	4,368	4,319	4,058	4,482
당진시	27,712	30,111	38,100	39,539	47,874	57,866	60,282	72,559
금산군	10,409	10,877	10,960	11,802	12,652	13,945	14,297	15,606
연기군	14,000	15,493	15,556	17,117	17,562	20,241	21,095	24,822
부여군	10,517	10,906	11,081	12,027	12,814	12,809	14,201	15,052
서천군	12,459	13,323	12,659	14,049	13,653	13,512	13,633	15,088
청양군	6,033	6,183	6,346	6,412	7,155	6,703	6,646	6,737
홍성군	12,318	13,254	14,284	14,248	14,542	15,471	16,855	16,679
예산군	11,784	12,179	13,441	13,766	13,614	15,387	16,082	17,518
태안군	12,888	12,553	13,840	13,876	14,612	11,876	15,161	15,907
충청남도	392,511	437,060	474,973	513,613	551,484	579,740	651,338	763,538

주 : 1) 2003년 이전 : 계룡출장소.

자료 : 시·군단위 지역내총생산, 충청남도.

3. 충남 부문별 경제지표

경기동행지수 및 순환변동치

(2010=100.0, %, p)

구 분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	
	지 수 (2010=100)	전 월 비	6개월 전비	12개월 전비	지 수 (Trend=100)	전월차
2010. 07	100.5	0.9	8.1	8.7	100.4	0.4
08	101.2	0.7	7.8	8.6	100.6	0.2
09	101.6	0.4	7.1	8.1	100.5	-0.1
10	101.6	0.0	5.9	7.2	100.0	-0.4
11	101.7	0.1	5.0	6.4	99.7	-0.4
12	102.5	0.8	5.7	6.4	100.1	0.4
2011. 01	104.2	1.6	7.9	7.3	101.2	1.2
02	104.9	0.6	8.0	7.1	101.4	0.2
03	105.1	0.2	7.3	6.7	101.2	-0.2
04	104.9	-0.2	5.9	5.9	100.5	-0.6
05	105.4	0.5	5.8	6.0	100.6	0.0
06	106.2	0.8	6.3	6.2	100.9	0.3
07	106.6	0.3	5.8	5.9	100.8	-0.1
08	107.0	0.4	5.7	5.8	100.8	0.0
09	107.4	0.3	5.5	5.5	100.7	-0.1
10	108.1	0.7	5.9	5.8	101.0	0.3
11	108.7	0.5	6.0	5.8	101.1	0.1
12	109.2	0.5	5.8	5.7	101.2	0.1
2012. 01	109.5	0.3	5.3	5.5	101.1	-0.1
02	110.0	0.4	5.3	5.4	101.1	0.0
03	109.9	-0.1	4.4	4.9	100.7	-0.4
04	110.1	0.2	4.1	4.6	100.5	-0.2
05	110.6	0.4	4.1	4.4	100.5	0.0
06	110.6	0.0	3.4	3.9	100.2	-0.3
07	110.8	0.2	3.2	3.7	100.0	-0.2
08	110.9	0.1	2.7	3.3	99.7	-0.3
09	111.5	0.6	3.2	3.5	99.9	0.2
10	111.6	0.1	2.8	3.2	99.7	-0.3
11	112.0	0.3	2.9	3.1	99.6	-0.0
12	112.2	0.1	2.7	2.9	99.4	-0.2
2013. 01	111.7	-0.4	1.6	2.2	99.0	-0.4
02	111.0	-0.6	0.2	1.3	98.3	-0.7
03	111.0	0.0	0.0	1.0	98.0	-0.3
04	112.0	0.8	1.4	1.6	98.7	0.5
05	112.4	0.4	1.8	1.7	98.9	0.1
06	112.8	0.4	2.2	1.8	99.0	0.1
07	113.1	0.2	2.4	1.9	99.0	0.0

자료 : 2013년 7월 충청남도 경기종합지수, 충청남도 · 충남발전연구원, 2013.9.

시장경기동향

(기준지수=100)

구 분	업황		매출		자금사정	
	체감	전망	체감	전망	체감	전망
2010	70.3	94.4	68.4	94.4	69.7	87.5
2011	65.6	94.4	63.1	94.8	67.9	91.0
2012	59.9	83.9	60.8	87.9	58.2	78.7
2012 1/4	48.2	87.2	51.8	85.1	49.8	81.9
2/4	64.7	80.3	64.9	91.1	62.9	75.1
3/4	58.6	78.5	58.7	80.5	53.2	70.9
4/4	68.0	89.9	67.9	94.8	66.7	86.8
2013 1/4	51.3	92.6	48.4	95.2	54.6	91.2
2013 2/4	60.7	91.6	61.8	96.5	63.4	90.2
2011. 08	65.6	96.7	58.1	86.5	66.9	92.4
09	85.5	101.9	85.3	108.2	77.9	95.9
10	69.7	102.2	71.2	104.9	72.8	91.7
11	63.5	93.2	65.5	91.9	65.0	86.3
12	59.7	87.3	66.6	85.7	69.5	89.5
2012. 01	54.2	97.8	62.9	97.7	54.4	93.1
02	43.3	61.9	43.8	51.9	46.0	60.9
03	47.0	101.8	48.7	105.7	49.1	91.7
04	67.4	84.3	64.3	97.5	56.7	78.7
05	79.6	83.3	76.4	99.8	68.5	71.5
06	47.1	73.2	54.0	76.1	63.6	75.0
07	50.4	72.0	53.3	68.1	50.7	69.2
08	52.9	64.9	46.2	64.0	46.0	57.2
09	72.4	98.5	76.5	109.4	62.9	86.2
10	76.9	102.2	72.7	107.5	71.1	94.6
11	82.7	96.4	90.3	101.7	77.0	91.3
12	44.5	71.0	40.6	75.1	51.9	74.4
2013. 01	41.9	72.0	38.9	66.6	49.8	76.4
02	52.9	104.1	50.9	110.4	59.9	96.4
03	59.1	101.7	55.4	108.6	54.1	100.7
04	58.8	100.8	61.2	105.3	62.4	97.6
05	69.6	96.6	66.9	102.7	68.3	92.4
06	53.6	77.5	57.2	81.4	59.6	80.7
07	49.4	78.6	49.7	72.8	58.3	75.4
08	53.9	72.5	53.2	79.4	54.2	68.7
09	-	105.5	-	116.3	-	96.5

자료 : 월간시장경기동향조사, 중소기업청시장경영진흥원

대형소매점 판매액

(단위 : 백만원, %, 경상판매액)

구 분	대형소매점			대형마트		
	판매액	전년동월(기)비	전월(기)비	판매액	전년동월(기)비	전월(기)비
2010	1,095,097	9.4	-	796,956	11.2	-
2011	1,450,812	32.5	-	918,307	15.2	-
2012	1,540,187	6.2	-	-	-	-
2012 1/4	378,000	6.5	-0.2	247,840	9.8	11.1
2/4	363,964	3.9	-3.7	230,878	3.7	-6.8
3/4	387,720	5.8	6.5	269,446	9.1	16.7
4/4	410,503	8.4	5.9	-	-	-
2013 1/4	385,588	2.0	-6.1	-	-	-
2/4	380,702	4.6	-1.3	-	-	-
2011. 07	124,762	36.4	6.1	84,338	17.1	12.4
08	114,166	30.9	-8.5	79,742	14.2	-5.4
09	127,612	29.2	11.8	82,798	8.1	3.8
10	124,339	42.8	-2.6	72,739	18.2	-12.1
11	114,856	41.3	-7.6	68,295	11.6	-6.1
12	139,613	11.9	21.6	82,044	14.1	20.1
2012. 01	136,752	2.1	-2.0	90,781	6.1	10.6
02	116,618	7.2	-14.7	76,802	9.8	-15.4
03	124,630	10.9	6.9	80,257	14.4	4.5
04	119,552	7.2	-4.1	75,968	9.1	-5.3
05	127,364	5.1	6.5	81,100	4.0	6.8
06	117,048	-0.5	8.1	73,810	-1.6	-9.0
07	128,184	2.7	9.5	87,973	4.3	19.2
08	123,597	8.3	-3.6	88,229	10.6	0.3
09	135,939	6.5	10.0	93,244	12.6	5.7
10	127,452	3.3	-6.2	-	-	-
11	133,475	16.2	4.7	-	-	-
12	149,576	7.1	12.1	-	-	-
2013. 01	121,870	-10.9	-18.5	-	-	-
02	128,268	10.0	5.2	-	-	-
03	135,450	8.7	5.6	-	-	-
04	120,308	0.6	-11.2	-	-	-
05	130,684	2.6	8.6	-	-	-
06	129,810	10.9	-0.7	-	-	-
07	124,021	-3.2	-4.5	-	-	-

자료 : 대형소매점판매동향, 충청지방통계청.

자동차 등록대수

(단위 : 대)

구 분	총 등록대수			차종별 등록대수			
	등록대수	전년동월차	전월차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화물
2010. 08	822,465	39,188	2,601	576,924	50,478	192,472	2,591
09	826,121	39,613	3,656	580,147	50,490	192,878	2,606
10	829,848	39,974	3,727	583,435	50,494	193,296	2,623
11	833,491	40,086	3,643	586,724	50,473	193,666	2,628
12	834,391	37,473	900	587,662	50,401	193,685	2,643
2011. 01	839,513	39,869	5,122	592,102	50,447	194,284	2,680
02	842,051	39,876	2,538	594,418	50,393	194,546	2,694
03	845,308	39,908	3,257	597,321	50,416	194,869	2,702
04	848,873	39,437	3,565	600,551	50,292	195,308	2,722
05	853,037	40,712	4,164	604,388	50,310	195,599	2,740
06	855,987	40,610	2,950	607,137	50,243	195,870	2,737
07	859,237	39,373	3,250	610,184	50,211	196,091	2,751
08	860,844	38,379	1,607	611,828	50,087	196,139	2,790
09	863,512	37,391	2,668	614,423	49,980	196,305	2,804
10	866,051	36,203	2,539	616,701	49,905	196,607	2,838
11	868,047	34,556	1,996	618,572	49,885	196,748	2,842
12	868,688	34,297	641	619,438	49,639	196,747	2,864
2012. 01	874,019	34,506	5,331	624,415	49,661	197,073	2,870
02	877,054	35,003	3,035	627,119	49,576	197,463	2,896
03	879,550	34,242	2,496	629,387	49,500	197,761	2,902
04	881,916	33,043	2,366	631,481	49,485	198,031	2,919
05	884,348	31,311	2,432	633,644	49,474	198,298	2,932
06	883,775	27,788	-573	635,705	49,457	198,684	2,929
07	849,209	-10,028	-34,566	609,179	47,178	190,024	2,828
08	848,303	-12,541	-906	608,524	47,155	189,786	2,838
09	850,312	-13,200	2,009	610,556	46,946	189,962	2,848
10	852,628	-13,423	2,316	612,698	46,930	190,135	2,865
11	855,322	-12,725	2,694	615,090	46,900	190,447	2,885
12	855,751	-12,937	429	615,770	46,751	190,331	2,899
2013. 01	859,321	-14,698	3,570	618,881	46,739	190,790	2,911
02	861,777	-15,277	2,456	620,903	46,796	191,142	2,936
03	864,711	-14,839	2,934	623,471	46,798	191,486	2,956
04	868,178	-13,738	3,467	626,387	46,884	191,914	2,993
05	870,741	-13,607	2,563	628,480	46,930	192,325	3,006
06	873,672	-13,103	2,931	630,864	46,956	192,837	3,015
07	876,401	27,192	2,729	633,075	47,103	193,183	3,040
08	877,022	28,719	621	634,179	46,986	192,807	3,050

자료 : 시군별자동차등록현황, 충청남도

소비자물가지수

(2010=100, %)

구분	소비자물가지수		생활물가지수		신선식품지수		지역별소비자물가					
	지수	전년 동월 (기)비	지수	전년 동월 (기)비	지수	전년 동월 (기)비	천안	전년 동월 (기)비	보령	전년 동월 (기)비	서산	전년 동월 (기)비
2010	100.0	3.0	100.0	3.4	100.0	22.6	100.0	2.9	100.0	3.5	100.0	3.0
2011	104.1	4.1	104.6	4.6	106.1	6.1	104.0	4.0	104.2	4.2	104.4	4.4
2012	106.6	2.4	106.7	2.0	113.2	6.7	106.6	2.5	105.9	1.6	106.8	2.3
2012 1/4	105.9	2.8	106.3	2.6	110.7	0.4	105.9	2.9	105.6	2.4	106.3	3.0
2/4	106.6	2.8	107.0	2.8	113.5	11.5	106.7	3.0	105.9	1.9	106.8	2.7
3/4	106.8	1.8	106.8	1.3	115.2	3.2	106.8	1.9	105.9	1.0	106.9	1.6
4/4	107.0	2.1	106.8	1.5	113.4	12.5	107.0	2.2	106.2	1.2	107.0	1.6
2013 1/4	107.5	1.5	107.2	0.8	117.7	6.3	107.5	1.5	106.7	1.0	107.7	1.3
2/4	107.2	0.6	106.3	-0.7	110.1	-3.0	107.3	0.5	106.6	0.6	107.5	0.7
2011, 08	105.2	4.9	105.8	5.5	116.7	15.1	105.1	4.8	105.1	4.8	105.4	5.0
09	105.0	4.1	105.7	4.4	112.3	-3.5	104.9	3.9	105.0	4.0	105.3	4.5
10	104.7	3.6	105.2	3.6	103.5	-13.1	104.6	3.5	104.7	3.6	105.2	4.0
11	104.7	4.1	105.1	4.6	99.9	-6.8	104.6	4.0	104.9	4.3	105.2	4.5
12	105.0	3.9	105.4	4.2	99.0	-7.4	104.8	3.7	105.1	4.1	105.5	4.4
2012, 01	105.5	3.2	105.9	3.2	106	-3.4	105.5	3.3	105.4	3.1	106.0	3.6
02	106.0	2.7	106.4	2.4	111.1	0.2	105.9	2.7	105.8	2.5	106.4	2.9
03	106.2	2.6	106.7	2.4	115.1	4.1	106.2	2.7	105.7	1.8	106.6	2.6
04	106.4	2.8	106.9	2.6	113.5	6.9	106.5	2.9	105.7	2.0	106.7	2.8
05	106.8	3.0	107.2	3.2	116.5	16.3	106.8	3.1	106.2	2.2	106.9	2.8
06	106.7	2.7	107.0	2.7	110.4	11.4	106.8	2.9	105.9	1.7	106.7	2.3
07	106.4	1.9	106.2	1.5	109.1	3.1	106.4	2.0	105.6	1.1	106.5	1.6
08	106.6	1.3	106.5	0.7	113.7	-2.6	106.7	1.5	105.7	0.6	106.7	1.2
09	107.4	2.3	107.7	1.9	122.9	9.4	107.4	2.4	106.5	1.4	107.5	2.1
10	107.2	2.4	107.2	1.9	118.8	14.8	107.3	2.6	106.4	1.6	107.2	1.9
11	106.8	2.0	106.5	1.3	109.5	9.6	106.8	2.1	106.0	1.0	106.9	1.6
12	106.9	1.8	106.6	1.1	112.0	13.1	107.0	2.1	106.1	1.0	107.0	1.4
2013, 01	107.5	1.9	107.2	1.2	117.3	10.7	107.6	2.0	106.6	1.1	107.6	1.5
02	107.7	1.6	107.5	1.0	119.0	7.1	107.8	1.8	106.8	0.9	107.9	1.4
03	107.4	1.1	106.9	0.2	116.7	1.4	107.5	1.2	106.7	0.9	107.6	0.9
04	107.3	0.8	106.7	-0.2	115.1	1.4	107.3	0.8	106.6	0.9	107.5	0.7
05	107.3	0.5	107.3	0.0	110.7	-5.0	107.3	0.5	106.6	0.4	107.6	0.7
06	107.1	0.4	106.0	-0.9	104.6	-5.3	107.2	0.4	106.5	0.6	107.4	0.7
07	107.3	0.8	106.0	-0.2	105.2	-3.6	107.3	0.8	106.7	1.0	107.6	1.0
08	107.6	0.9	106.8	0.3	111.8	-1.7	107.6	0.8	107.1	1.3	108.2	1.4

자료 : 충청지역소비자물가동향, 충청지방통계청.

수출입

(단위 : 백만달러, %)

구 분	수출			수입			무역수지
	수출액	전년 동월(기)비	전월 (기)비	수입액	전년 동월(기)비	전월 (기)비	
2010	54,054	37.1	-	24,893	30.1	-	29,161
2011	59,954	10.9	-	33,640	35.1	-	26,314
2012	62,031	3.5	-	33,509	-0.4	-	28,522
2012. 1/4	14,526	5.1	-8.3	8,686	13.9	2.2	5,840
2/4	14,811	-0.2	2.0	8,851	2.9	1.9	5,960
3/4	15,746	1.9	6.3	7,869	-11.8	-11.1	7,877
4/4	16,949	7.0	7.6	8,103	-4.6	3.0	8,846
2013. 1/4	15,904	9.5	-6.1	8,854	1.9	9.4	7,050
2/4	15,324	3.5	-3.6	8,244	-6.9	-6.9	7,080
2011. 09	5,435	13.2	10.4	3,225	44.0	12.5	2,210
10	5,510	10.3	1.4	2,834	39.6	-12.1	2,676
11	4,996	7.2	-9.3	2,741	27.7	-3.3	2,255
12	5,328	15.4	6.6	2,922	21.6	6.6	2,406
2012. 01	4,563	-3.6	-14.4	2,782	8.9	-4.8	1,781
02	4,828	14.4	5.8	3,100	38.8	11.4	1,728
03	5,135	5.4	6.4	2,804	-1.1	-9.5	2,331
04	4,741	-2.6	-7.7	2,972	10.6	6.0	1,769
05	5,061	0.8	6.7	3,116	12.1	4.8	1,945
06	5,008	1.0	-1.0	2,763	-11.8	-11.3	2,245
07	5,134	0.9	2.5	2,398	-15.2	-13.2	2,736
08	5,048	2.5	-1.7	2,477	-13.6	3.3	2,571
09	5,564	2.4	10.2	2,994	-7.2	20.9	2,570
10	5,918	7.4	6.4	2,395	-15.5	-20.0	3,523
11	5,743	15.0	-3.0	2,874	4.9	20.0	2,869
12	5,287	-0.8	-7.9	2,833	-3.0	-1.4	2,454
2013. 01	5,317	16.5	0.6	2,874	3.3	1.4	2,443
02	5,101	5.7	-4.1	2,845	-8.2	-1.0	2,255
03	5,487	6.8	7.6	3,140	12.0	10.4	2,346
04	4,960	4.6	-9.6	2,861	-3.7	-8.9	2,099
05	5,297	4.7	6.8	2,452	-21.3	-14.3	2,846
06	5,065	1.1	-4.4	2,929	6.0	19.5	2,136
07	5,322	3.7	5.1	2,818	17.4	-3.9	2,503
08	5,597	10.9	5.2	2,645	6.8	-6.2	2,953

자료 : 지역별수출입, 무역통계, 한국무역협회.

고용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 천명, %, %p)

구분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합계	전년 동월(기)비	남자	여자	합계	전년 동월(기)비	남자	여자
2010	1,003	1.2	591	412	62.2	-0.2	74.1	50.5
2011	1,025	2.2	609	416	62.4	0.2	75.0	50.1
2012	1,080	5.4	641	439	62.9	0.5	75.0	50.9
2012. 1/4	991	2.9	595	396	59.0	-0.1	71.5	46.8
2/4	1,110	4.6	653	457	65.1	0.3	77.0	53.3
3/4	1,120	7.3	664	456	64.7	1.3	76.9	52.5
4/4	1,100	6.7	652	448	62.8	0.6	74.6	51.0
2013. 1/4	1,070	8.0	648	422	60.2	1.2	72.9	47.5
2/4	1,208	8.9	719	489	66.9	1.8	79.4	54.4
2011. 09	1,038	0.0	611	427	62.9	-1.3	74.9	51.2
10	1,066	3.1	624	442	64.5	0.7	76.3	52.8
11	1,041	2.0	615	425	62.8	-0.1	75.1	50.8
12	985	1.8	596	389	59.3	-0.2	72.4	46.4
2012. 01	959	3.8	572	386	57.4	0.7	69.1	45.8
02	975	2.1	592	383	58.0	-0.6	71.1	45.2
03	1,041	2.8	622	419	61.7	-0.3	74.2	49.3
04	1,097	5.3	648	448	64.6	0.9	76.9	52.5
05	1,113	4.6	654	459	65.3	0.3	77.1	53.6
06	1,119	4.0	657	463	65.3	-0.3	76.9	53.8
07	1,129	7.4	664	465	65.5	1.6	77.2	53.8
08	1,112	6.6	664	448	64.2	0.9	76.9	51.5
09	1,119	7.7	663	455	64.4	1.5	76.5	52.3
10	1,128	5.8	664	464	64.7	0.2	76.3	53.1
11	1,117	7.4	656	461	63.8	1.0	75.2	52.5
12	1,054	7.0	636	418	59.9	0.6	72.4	47.5
2013. 01	1,030	7.4	624	405	58.2	0.8	70.7	45.8
02	1,047	7.4	630	417	58.9	0.9	70.9	46.9
03	1,135	9.1	690	446	63.5	1.8	77.1	49.9
04	1,186	8.2	706	480	66.1	1.5	78.5	53.6
05	1,215	9.2	726	490	67.3	2.0	80.2	54.4
06	1,223	9.2	725	498	67.4	3.2	79.6	55.1
07	1,228	8.7	735	493	67.4	1.9	80.3	54.4
08	1,210	8.9	722	489	66.3	2.1	78.7	53.7

자료 : 행정구역별 경제활동인구, 통계청.

연령별 취업자

(단위 : 천명, %)

구분	전체 취업자		청장년층					고령층		
	합계	전년 동월대비	15- 19세	20- 29세	30- 39세	40- 49세	50- 54세	55- 59세	60- 64세	65세 이상
2010	974	1.3	9	140	215	252	115	84	58	102
2011	1,001	2.8	10	139	215	257	119	89	63	109
2012	1,056	5.5	11	151	219	264	125	96	61	128
2012, 1/4	961	2.8	10	140	213	251	120	89	56	83
2/4	1,084	4.3	12	149	222	266	126	99	64	146
3/4	1,097	7.5	13	154	222	270	126	99	63	150
4/4	1,079	7.0	10	160	221	268	129	99	61	132
2013, 1/4	1,035	7.7	10	158	223	264	129	96	56	100
2/4	1,174	8.3	12	174	236	277	137	106	70	163
2011, 09	1,016	1.0	7	133	216	261	119	93	68	119
10	1,038	3.3	7	135	218	267	123	93	69	128
11	1,023	2.8	8	137	222	264	122	92	64	115
12	965	2.4	10	136	216	259	116	92	56	80
2012, 01	930	3.5	12	133	210	251	120	85	51	68
02	938	1.5	10	140	213	247	116	85	56	72
03	1,015	3.4	8	147	216	257	124	95	60	109
04	1,069	5.2	14	145	222	263	125	100	62	139
05	1,094	4.6	12	150	223	268	126	99	66	150
06	1,090	3.1	11	151	221	267	126	98	65	150
07	1,104	7.5	15	155	221	272	126	99	64	152
08	1,088	6.8	14	151	223	267	125	97	62	149
09	1,099	8.2	11	156	221	270	128	100	64	150
10	1,110	6.9	11	158	219	273	131	103	65	151
11	1,097	7.3	9	161	222	266	129	101	62	148
12	1,031	6.9	11	161	221	264	126	95	57	97
2013, 01	1,001	7.6	12	158	216	261	125	94	53	82
02	1,003	6.9	9	150	222	262	127	94	53	87
03	1,101	8.5	11	165	230	268	136	101	60	130
04	1,157	8.2	11	172	234	276	137	104	69	154
05	1,180	7.9	13	175	235	276	137	107	70	167
06	1,186	8.8	12	175	239	279	135	107	71	168
07	1,194	8.1	16	175	242	280	134	109	73	165
08	1,180	8.4	14	165	239	281	135	113	72	162

자료 : 행정구역(시도)/연령별 취업자, 통계청.

산업별 취업자

(단위 : 천명, %)

구분	합계	전년 동월(기) 비	농림어업	광공업	건설업	도소매 숙박음식업	사업·개인· 공공서비스 및 기타	전기운수 통신금융
2010	974	1.3	164	185	55	177	296	99
2011	1,001	2.8	163	204	64	177	297	97
2012	1,056	5.5	159	213	69	199	322	93
2012, 1/4	961	2.8	99	208	65	191	300	98
2/4	1,084	4.3	183	206	70	197	330	98
3/4	1,097	7.5	190	214	69	205	327	91
4/4	1,079	7.0	163	223	73	203	329	88
2013, 1/4	1,035	7.7	113	238	71	197	328	89
2/4	1,174	8.3	193	252	83	199	354	94
2011, 09	1,016	1.0	180	207	67	171	297	94
10	1,038	3.3	189	213	70	180	295	92
11	1,023	2.8	162	217	70	187	294	93
12	965	2.4	105	214	72	189	290	95
2012, 01	930	3.5	80	211	67	190	287	97
02	938	1.5	82	208	63	191	296	98
03	1,015	3.4	136	205	67	191	319	98
04	1,069	5.2	176	203	70	192	332	96
05	1,094	4.6	188	209	70	199	330	99
06	1,090	3.1	186	205	71	202	329	98
07	1,104	7.5	188	212	67	213	331	94
08	1,088	6.6	188	212	70	209	319	91
09	1,099	8.2	194	219	72	195	332	88
10	1,110	6.9	189	217	75	207	331	90
11	1,097	7.3	185	225	70	204	327	87
12	1,031	6.9	116	228	73	199	330	86
2013, 01	1,001	7.6	94	230	68	205	317	87
02	1,003	6.9	95	233	67	195	324	89
03	1,101	8.5	151	250	77	191	342	90
04	1,157	8.2	182	256	83	191	350	96
05	1,180	7.9	197	253	82	200	354	94
06	1,186	8.8	200	247	83	205	359	93
07	1,194	8.1	198	247	81	210	360	99
08	1,180	8.4	196	250	75	197	365	96

자료 : 행정구역(시도)/산업별 취업자, 통계청.

실업률, 실업자

(단위 : 천명, %, %p)

구분	실업률				실업자			
	합계	전년 동월(기)차	남자	여자	합계	전년 동월(기)비	남자	여자
2010	2.9	-0.1	3.1	2.5	29	-2.4	18	10
2011	2.3	-0.6	2.4	2.2	24	-17.8	15	9
2012	2.3	0.0	2.2	2.4	25	4.2	14	10
2012, 1/4	3.0	0.0	3.0	3.1	30	5.6	18	12
2/4	2.3	0.4	2.1	2.5	25	22.8	14	12
3/4	2.0	-0.2	2.0	2.0	23	-3.4	14	9
4/4	1.9	-0.2	1.8	2.0	20	-6.8	12	9
2013, 1/4	3.3	0.3	3.2	3.4	35	17.6	21	14
2/4	2.8	0.5	3.1	2.4	34	33.6	22	12
2011, 09	2.2	-1.0	2.3	2.0	22	-31.9	14	8
10	2.6	-0.1	3.4	1.4	28	-1.8	22	6
11	1.7	-0.7	1.7	1.7	17	-30.5	10	7
12	2.1	-0.5	2.4	1.6	21	-19.5	14	6
2012, 01	2.9	0.3	3.1	2.6	28	16.5	18	10
02	3.8	0.5	4.0	3.5	37	17.6	23	13
03	2.5	-0.5	2.0	3.1	26	-15.0	13	13
04	2.5	0.1	2.3	2.7	27	8.3	15	12
05	1.8	0.1	1.5	2.2	20	8.8	10	10
06	2.6	0.9	2.5	2.7	29	56.2	17	12
07	2.2	-0.1	2.2	2.1	25	3.3	15	10
08	2.1	-0.2	2.2	2.0	24	-0.4	15	9
09	1.7	-0.5	1.6	1.8	19	-14.3	11	8
10	1.6	-1.0	1.4	1.9	18	-33.9	10	9
11	1.8	0.1	1.7	1.9	20	15.0	11	9
12	2.2	0.1	2.2	2.2	23	11.7	14	9
2013, 01	2.8	-0.1	2.6	3.2	29	1.8	16	13
02	4.2	0.4	3.8	4.8	44	19.6	24	20
03	3.0	0.5	3.4	2.3	34	31.8	23	10
04	2.5	0.0	2.5	2.4	29	7.7	18	12
05	2.9	1.1	3.2	2.5	36	79.3	24	12
06	3.0	0.4	3.5	2.2	37	26.3	25	11
07	2.8	0.6	3.3	2.0	34	36.1	24	10
08	2.5	0.4	2.7	2.3	31	30.5	20	11

자료 : 행정구역(시도)/성별 실업률, 행정구역(시도)/성별 실업자, 통계청.

여수신

(단위 : 억원)

구분	수신			여신		
	예금은행	비은행기관	합계	예금은행	비은행기관	합계
2010	148,607	283,939	432,546	228,745	154,247	382,992
2011	171,209	296,369	467,578	242,580	165,180	407,760
2012	176,102	297,849	473,951	247,034	157,286	404,320
2010. 07	143,542	274,235	417,777	224,489	149,021	373,510
08	145,929	273,364	419,293	225,242	150,623	375,865
09	146,935	275,753	422,688	226,105	151,381	377,486
10	148,884	278,370	427,254	228,808	152,127	380,935
11	148,895	280,774	429,669	229,868	152,573	382,441
12	148,607	283,939	432,546	228,745	154,247	382,992
2011. 01	149,945	285,728	435,673	228,042	153,447	381,489
02	152,336	283,236	435,572	227,905	153,640	381,545
03	153,838	288,193	442,031	228,882	153,587	382,469
04	154,761	287,199	441,960	229,865	154,356	384,221
05	158,104	287,429	445,533	230,721	155,414	386,135
06	156,866	289,586	446,452	232,444	156,256	388,700
07	157,311	289,258	446,569	233,679	156,898	390,577
08	161,351	289,776	451,127	234,883	158,834	393,717
09	161,652	290,290	451,942	235,985	159,761	395,746
10	162,668	291,155	453,823	241,851	161,415	403,266
11	164,574	294,210	458,784	243,255	162,963	406,218
12	171,209	296,369	467,578	242,580	165,180	407,760
2012. 01	168,927	296,961	465,888	245,495	164,497	409,992
02	170,977	296,845	467,822	246,535	164,433	410,968
03	177,719	299,136	476,855	247,713	164,775	412,488
04	171,814	300,045	471,859	250,943	165,888	416,831
05	175,074	301,932	477,006	252,995	166,482	419,477
06	177,213	306,227	483,440	253,422	167,002	420,424
07	168,987	306,077	475,064	253,686	168,036	421,722
08	173,207	305,620	478,827	256,291	169,522	425,813
09	167,636	290,970	458,606	245,719	156,259	401,978
10	169,646	293,034	462,680	249,763	156,316	406,079
11	173,265	293,094	466,359	248,952	155,717	404,669
12	176,102	297,849	473,951	247,034	157,286	404,320
2013. 01	182,827	299,436	482,263	247,947	156,711	404,658
02	186,423	299,016	485,439	249,281	156,559	405,840
03	186,938	300,107	487,045	250,243	156,586	406,829
04	190,279	300,406	490,685	251,679	156,791	408,470
05	192,378	300,785	493,163	253,511	156,810	410,321
06	190,473	302,674	493,147	256,242	157,639	413,881
07	192,959	302,487	495,446	256,198	158,514	414,712

자료 : 금융기관여수신동향, 한국은행대전총남본부.

부도율

(단위 : %)

구분	충남	천안	홍성	논산	공주	서산
2010	0.17	0.20	0.33	0.21	0.05	0.05
2011	0.29	0.42	0.24	0.14	0.64	0.00
2012	0.38	0.45	0.08	0.05	0.44	0.01
2012. 1/4	0.15	0.26	0.02	0.20	0.00	0.01
2/4	0.38	0.23	0.00	0.00	0.26	0.00
3/4	0.24	0.13	0.22	0.03	1.05	0.02
4/4	0.73	0.18	0.10	0.01	0.46	0.00
2013. 1/4	0.57	1.26	0.36	0.00	0.35	0.01
2/4	0.09	0.08	0.04	0.00	0.48	0.00
2011. 08	0.18	0.27	0.06	0.15	0.65	0.02
09	0.28	0.14	0.31	0.00	3.67	0.01
10	0.39	0.61	0.06	0.13	1.93	0.00
11	0.74	1.33	0.18	0.41	0.60	0.00
12	0.08	0.07	0.04	0.48	0.21	0.00
2012. 01	0.18	0.21	0.00	0.48	0.00	0.00
02	0.15	0.23	0.00	0.05	0.00	0.02
03	0.13	0.34	0.05	0.00	0.00	0.00
04	0.20	0.20	0.00	0.00	0.14	0.00
05	0.57	0.27	0.00	0.00	0.29	0.00
06	0.37	0.23	0.00	0.01	0.34	0.00
07	0.21	0.09	0.54	0.07	1.79	0.01
08	0.19	0.10	0.11	0.02	0.16	0.01
09	0.32	0.19	0.00	0.00	1.20	0.03
10	0.25	0.32	0.10	0.01	0.31	0.00
11	0.75	1.83	0.00	0.01	0.22	0.00
12	1.18	1.39	0.19	0.00	0.86	0.00
2013. 01	0.97	2.18	1.09	0.00	1.06	0.02
02	0.11	0.20	0.00	0.00	0.00	0.00
03	0.63	1.41	0.00	0.00	0.50	0.00
04	0.11	0.07	0.11	0.00	1.12	0.00
05	0.12	0.16	0.00	-	0.30	0.00
06	0.04	0.01	0.00	0.00	0.02	0.00
07	0.73	0.53	0.00	0.00	0.07	0.03

자료 : 대전충남지역어음부도동향, 한국은행대전충남본부.

토지거래, 건축, 미분양주택

(단위 : 천㎡, ㎡, %)

구분	건축허가(㎡)		건축착공(㎡)		토지거래(천㎡)		미분양주택	
	면적	전년동월(기)비	면적	전년동월(기)비	면적	전년동월(기)비	호수	전년동월(기)비
2010	6,636,749	-7.9	6,347,763	19.7	225,210	-16.7	9,020	-8.2
2011	9,980,356	50.4	8,895,818	40.1	192,976	-14.3	7,471	-17.2
2012	9,794,659	-1.9	7,979,081	-10.3	167,889	-13.0	2,942	-60.6
2012. 1/4	2,438,824	70.8	2,355,123	79.0	45,709	2.7	6,502	19.5
2/4	2,593,520	30.5	2,561,628	23.1	46,458	-20.0	6,156	-14.8
3/4	2,127,652	-27.1	1,540,403	-5.0	31,807	-24.2	6,187	-3.0
4/4	2,634,663	-27.7	1,521,927	-60.8	43,915	-11.7	2,942	-60.6
2013. 1/4	1,838,644	-24.6	1,199,772	-49.1	41,927	-8.3	2,697	-58.5
2/4	2,434,543	-6.1	1,143,533	-55.4	41,455	-10.8	2,961	-51.9
2011. 09	892,461	135.0	737,453	87.6	11,892	20.2	6,379	-41.2
10	1,518,020	245.2	1,290,749	177.7	11,696	-38.9	5,903	-42.6
11	1,212,422	49.1	1,827,431	174.3	15,292	-29.3	7,391	-24.8
12	913,575	90.2	761,247	28.8	22,735	-30.0	7,471	-17.2
2012. 01	558,630	34.7	507,442	98.4	12,571	-12.3	7,159	-18.2
02	714,587	77.2	1,023,484	185.9	14,206	18.9	6,746	-20.4
03	1,165,607	91.0	824,197	17.7	18,932	14.7	6,502	19.5
04	816,591	37.5	1,083,638	49.5	14,986	-15.7	6,180	-18.9
05	827,663	14.3	595,332	-15.0	13,931	-22.8	6,065	-18.7
06	949,266	41.7	882,658	34.6	17,541	-8.2	6,156	-14.8
07	528,696	1.1	475,662	11.3	12,085	-36.8	6,035	-12.6
08	878,978	-41.6	624,679	36.8	10,470	-21.4	5,965	-8.9
09	719,978	-19.3	440,062	-40.3	9,252	-18.9	6,187	-3.0
10	482,405	-68.2	437,787	-66.1	13,496	1.3	4,148	-29.7
11	659,328	-45.6	647,657	-64.6	15,317	8.5	3,068	-58.5
12	1,492,930	63.4	436,483	-42.7	15,102	-23.5	2,942	-60.6
2013. 01	462,034	-17.3	82,466	-83.7	14,348	14.6	2,691	-8.5
02	596,566	-16.5	516,833	-49.5	12,329	-13.2	2,563	-4.8
03	780,044	-33.1	600,473	-27.1	15,250	-19.4	2,697	-58.5
04	767,159	-6.1	106,960	-90.1	17,795	18.7	2,555	-58.7
05	874,153	5.6	565,109	-5.1	15,637	12.2	2,351	-61.2
06	793,231	-16.4	471,464	-20.8	12,554	-28.4	2,961	-51.9
07	608,787	-23.3	477,506	11.8	13,264	-9.8	2,565	-57.5
08	966,712	10.0	1,228,153	96.6	12,931	23.5	-	-

자료 : 건축허가 및 착공통계, 충남도 / 미분양주택현황, 국토교통통계누리 / 토지거래현황, 온나라부동산정보통합포털.

주택매매가격지수, 주택전세가격지수

(2013.3=100.0)

구분	주택매매가격지수						주택전세가격지수					
	지수	전년 동월비	전월비	아파트	단독	연립	지수	전년 동월비	전월비	아파트	단독	연립
2010. 08	85.5	1.0	-0.2	79.1	98.0	91.2	77.3	3.7	0.2	69.8	92.0	86.8
09	85.5	0.7	0.0	79.2	98.0	91.4	78.0	4.1	0.9	70.2	93.4	87.4
10	85.5	0.3	0.0	79.3	98.0	91.4	78.6	4.6	0.8	70.6	94.6	88.2
11	85.7	0.3	0.2	79.5	98.0	92.0	78.9	4.7	0.4	71.3	94.2	88.7
12	85.8	0.4	0.1	79.7	98.0	92.0	79.2	5.1	0.4	71.9	94.3	88.7
2011. 01	85.9	0.5	0.1	79.9	98.0	92.0	79.5	5.4	0.4	72.3	94.3	88.7
02	86.1	0.7	0.3	80.3	98.0	92.0	80.1	5.9	0.7	73.1	94.8	88.8
03	86.8	1.3	0.8	81.1	98.7	92.1	81.0	6.6	1.2	74.2	95.5	89.0
04	87.7	2.5	1.0	82.3	99.2	92.3	82.2	7.6	1.4	75.7	96.4	89.3
05	88.3	3.2	0.7	83.3	99.2	92.4	82.9	7.6	0.8	76.8	96.4	89.4
06	88.7	3.6	0.5	84.1	99.1	92.0	83.3	8.1	0.5	77.5	96.3	89.5
07	89.4	4.4	0.7	84.9	99.6	92.1	84.1	9.1	1.0	78.3	97.2	89.8
08	90.1	5.5	0.8	85.9	100.0	92.1	85.2	10.3	1.3	79.7	97.8	89.9
09	90.9	6.4	0.9	86.9	100.4	93.3	86.2	10.6	1.2	81.0	98.3	91.9
10	91.7	7.2	0.9	88.1	100.4	93.5	87.2	10.9	1.1	82.3	98.3	91.9
11	92.6	8.1	1.0	89.6	100.3	93.5	88.5	12.1	1.5	84.4	98.3	91.9
12	93.0	8.4	0.4	90.1	100.3	93.5	89.0	12.3	0.6	85.1	98.3	91.9
2012. 01	93.4	8.8	0.5	90.8	100.1	93.5	89.6	12.7	0.6	86.0	98.4	91.9
02	93.8	8.9	0.4	91.4	100.1	93.7	90.1	12.5	0.6	86.7	98.4	91.9
03	94.4	8.8	0.6	92.2	100.2	94.0	90.8	12.0	0.8	87.7	98.4	92.4
04	95.3	8.8	1.0	93.5	100.3	94.2	91.9	11.8	1.2	89.3	98.4	92.7
05	95.8	8.5	0.5	94.2	100.2	94.4	92.4	11.5	0.6	90.1	98.3	93.0
06	96.3	8.6	0.6	94.9	100.2	95.3	92.9	11.5	0.5	90.6	98.6	93.6
07	97.0	8.5	0.7	95.7	100.3	95.7	93.8	11.5	1.0	91.7	98.9	94.7
08	97.3	8.0	0.4	96.1	100.4	96.4	94.3	10.7	0.5	92.2	99.2	95.8
09	97.8	7.6	0.5	96.8	100.5	97.1	95.0	10.2	0.8	93.1	99.4	96.4
10	98.3	7.2	0.5	97.5	100.4	97.6	95.9	10.1	0.9	94.4	99.4	97.2
11	99.0	6.8	0.7	98.4	100.5	98.2	97.4	10.1	1.6	96.6	99.4	97.6
12	99.3	6.8	0.3	98.9	100.3	98.6	98.1	10.3	0.7	97.7	99.2	98.1
2013. 01	99.5	6.5	0.2	99.2	100.3	98.9	98.9	10.5	0.8	98.7	99.7	98.4
02	99.8	6.4	0.3	99.7	100.2	99.5	99.3	10.2	0.4	99.2	99.8	99.1
03	100.0	5.9	0.2	100.0	100.0	100.0	100.0	10.2	0.7	100.0	100.0	100.0
04	100.3	5.2	0.3	100.4	100.0	100.2	100.4	9.2	0.4	100.5	100.1	100.1
05	100.4	4.8	0.1	100.6	100.0	101.1	100.6	8.8	0.2	100.7	100.1	101.1
06	100.6	4.5	0.2	100.8	99.9	101.7	100.9	8.6	0.3	101.1	100.1	101.9
07	100.8	4.0	0.2	101.1	99.8	101.8	101.2	7.9	0.3	101.6	100.0	102.0
08	100.8	3.6	0.0	101.3	99.6	101.9	101.5	7.6	0.3	101.8	100.3	102.7

자료 :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국민은행



Chungnam Economic Trends

부록

충청남도 경제지원시책
알기쉬운 경제용어 해설
월간 충남경제 원고 게재 목록





충청남도 경제지원시책

2013년 하반기 충청남도 해외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 개 요

- **사업개요** : 충남도가 주최하고 한국무역협회 대전충남지역본부가 주관, 중국·미국·일본·유럽·인도·동남아시아 등 충남 수출기업의 주요 수출대상국 약 30개사 유력 바이어가 참가
- **때 · 곳** : 2013. 11. 28(목), 덕산 리솜스파캐슬
- **지원내용** : 지역 중소기업의 유망 해외바이어 발굴 및 해외시장 개척 지원, 상담현장에는 수출 지원기관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해 수출관련 기업 애로를 실시간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문컨설팅 기회도 제공

□ 신청 및 문의처

- **신청** : 한국무역협회 대전충남지부
- **접수기한** : 2013. 9. 27(금)
- **문의처** : 홈페이지(<http://dc.kita.net>)와 전화 (042-338-1008)

고용창출 우수기업인증제 신청기업 모집

□ 개 요

- **신청대상** : 충남도내 소재(본사 또는 사업장) 기업 중 최근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 전년대비 상용근로자 고용 증가율 10% 이상이면서 최소 10명 이상 신규채용한 중소기업체
- **신청기간** : 2013. 8. 20(화) ~ 9.23(월)
- **지원내용** : 기업당 1,500만원, 인증 후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수출보증보험료 10% 우대(회사당 300만원 한도)
- **선정범위** : 30여개 기업
- **최종선정** : 2013. 11. 15(금)
 - 사군의 1차 평가 내용과 서류 확인 등을 거쳐 '인증심사위원회' 에서 최종 결정

□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 **서류제출** : 사군 일자리업무 담당부서(경제과 또는 지역경제과)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중소기업 해외인증 획득 비용 지원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우수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해외 규격 중 CE(유럽공동체마크) 등 제품인증분야 182종의 인증심사 및 제품시험 비용 지원
- **지원대상** : 충남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개 업체당 1개 해외규격인증 마크 지원
- **사업기간** : 2013. 8. 13(공고일) ~ 2013. 12월
- **지원내용** : 인증 획득 지도기관을 통한 컨설팅 비용, 인증심사, 제품시험 비용 등 최고 500만원

□ 신청서 배부 및 문의처

- **신청서** : 충남도 홈페이지(www.chungnam.net) 공고, 기업 SOS 충남넷(giupsos.chungnam.net) 공지사항
- **접수기간** : 2013. 8. 13(공고일) ~ 예산 소진시 까지
- **접수처** : 충남도 경제통상실 기업지원과(전화:041-635-3414)



알기쉬운 경제용어 해설



펀더멘털 (Fundamental)

- 한 나라의 경제상태를 표현하는데 있어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는 주요 거시경제지표를 뜻함
-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경상수지가 가장 대표적인 거시경제 지표임



역플라자합의

- 1995년 4월 G7경제장관, 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이루어진 엔저유도를 위한 합의로서 1985년 9월 대일적자를 메우기 위해 엔고 유도를 위한 플라자합의에 반대되는 내용이라고 하여 역플라자합의로 부름



구매력평가 (PPP; purchasing power parity)

- 환율이 양국 통화의 구매력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이론으로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함을 가정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하면 환율은 양국의 물가수준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를 다른 말로 절대적 구매력평가라고도 함
- 절대적 구매력평가설에 의한 환율의 변화율은 양국의 인플레이션 차이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를 상대적구매력평가라고 함



소비자기대지수 (consumer expectation index)

- 현재와 비교하여 6개월 후의 경기, 생활형편, 소비지출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를 나타내는 지표
- 현재의 경기상황, 생활형편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관적인 인식을 파악하여 현재 또는 향후의 경제상황을 판단하거나 예측하는 자료로 활용



MMF (Money Market Funds)

- 투자신탁회사가 고객들의 자금을 모아 펀드를 구성한 다음 금리가 높은 만기 1년 미만의 단기금융상품에 집중투자하여 얻은 수익을 고객에게 되돌려주는 만기 30일 이내의 초단기 금융상품



제조업 PMI 지수 (구매관리자지수 : Purchasing Managers' Index)

- 미국 구매관리자협회인 NAPM(National Association of Purchasing Management)이 매달 제조업 동향에 대한 설문을 실시해 산출하는 제조업 분야의 경기지표



ISM 제조업 지수 (Institute for Supply Management)

- 미국 실물경제의 대표적인 선행지표로 미국 20개 산업의 300개 제조업체들에게 신규수주, 생산, 고용, 물품인도, 재고 등에 관한 설문으로 산출됨
- 제조업체의 구매담당자가 느끼는 경기를 지수화한 것으로 현장성과 전문성을 가지며, 지수가 50을 초과하면 제조업 경기의 확장을 의미하고, 50미만이면 경기의 수축을 의미함



소비자기대지수 (consumer expectation index)

- 현재와 비교하여 6개월 후의 경기, 생활형편, 소비지출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를 나타내는 지표
- 현재의 경기상황, 생활형편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관적인 인식을 파악하여 현재 또는 향후의 경제상황을 판단하거나 예측하는 자료로 활용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 도소매 판매액·생산·출하 등으로 구성되는 동행지표에서 추세치를 제거해 경기의 순환만을 보는 것. 따라서 순환변동치는 현재의 경기가 어느 국면에 있는가를 비교적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음
- 동행지수에서 추세치를 제거한다는 것은 동행지수에서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추세분을 빼준다는 의미임.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0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호황, 미만일 때는 불황으로 분류됨

※ 출처 : NAVER 지식백과.



월간 충남경제 원고 게재 목록

2011. 10월호

충청광역경제권 지역산업의 현황 및 산업구조
충청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강신재
인삼엑스포 이후를 생각한다
금산세계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 하광학

2011. 11월호

충남 사업체고용동향조사 분석 및 시사점
충남발전연구원
신동호 · 백운성 · 김양중 · 임형빈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언
충남발전연구원 김양중

2011. 12월호

2012년 대전충청권 부동산시장 전망
목원대학교 부동산연구센터 조수희
우리나라의 소득양극화 진단과 완화
충남발전연구원 고승희

2012. 1월호

2012년 충청남도 경제정책 운영방향
충청남도 남궁영
우리나라의 물가구조의 특성과 정책적 시사점
충남발전연구원 백운성 · 신동호 · 임병철

2012. 2월호

2012년 충남 디스플레이산업 전망
충남테크노파크 디스플레이센터 황정현
2011년 충남의 수출입 동향 및 2012년 전망
충남발전연구원 김윤아

2012. 3월호

경기종합지수의 개념과 지역경기종합지수의 필요성
전북발전연구원 최성환
"대형마트 강제휴무" 조례제정 추진에 관한 일고찰
충남발전연구원 이민정

2012. 4월호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 평가체계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제언
충청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강신재
충남발전연구원 백운성
충남지역 에너지소비구조 특성
충남발전연구원 이종윤

2012. 5월호

협동조합기본법에 대한 이해와 자치단체의 역할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송두범
충남지역의 소득불평등 측정 및 추이분석
충남발전연구원 임병철

2012. 6월호

유로존 재정위기 항방과 충남경제
포스코경영연구소 김영삼
외국인투자기업 유치에 위한 입지환경 분석
충남발전연구원 김양중

2012. 7월호

주택시장 변동요인과 충남 주택시장 영향
주택산업연구원 노희순,
충남발전연구원 임형빈
노동행정 통계로 본 충남지역 노동시장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객선아

2012. 8월호

충남 중소기업 지원시스템 효율화 방안

충남발전연구원 신동호

우리나라의 국가채무와 가계부채

충남발전연구원 고승희

2012. 9월호

충청남도 산업입지 정책방향과 추진과제

충남발전연구원 오용준

충남의 기후변화의 영향과 부문별 피해 분석

충남발전연구원 이인희

2012. 10월호

국가통계정보 활용 제고를 위한 통계지리정보

충남발전연구원 윤정미

충남 사회적기업의 현황과 성과

충남발전연구원 홍성호

2012. 11월호

최근 도시재생 및 노후주거지 정비 관련 정책변화에 따른 충청남도의 대응과제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임정민
새정부의 지방과학기술정책 활성화를 위한 제언

충남발전연구원 백운성

2012. 12월호

충남지역 상권과 대형소매점 영업활동 규제방향

남서울대학교 원종문

중국 산둥반도 남색경제구 발전 규칙과 충남도의 대응과제

충남발전연구원 박경철

2013. 1월호

내포시대 충청남도 경제정책 운영방향

충청남도 남궁영

2012년 충남의 수출입 동향 및 2013년 전망

충남발전연구원 김윤아

2013. 2월호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변화와 전망

충남테크노파크 황정현

지방자치단체 복지재정의 쟁점과 과제

충남발전연구원 고승희

2013. 3월호

GRDP로 살펴보는 충남경제

충남발전연구원 임형빈, 김윤아

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의 시행성과

충남발전연구원 정우혁

2013. 4월호

화 강세에 따른 충남경제의 영향과 대응방안

제주발전연구원 고봉현

의미있는 변화, 'Long life design & Recycle'

충남문화산업진흥원 박준형

2013. 5월호

문화마케팅 수단으로서 도시브랜드

충남발전연구원 이충훈

공주·부여 역사도시의 관광산업기반 조성방향

충남발전연구원 이인배

2013. 6월호

충남 협동조합 현황과 과제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송두범

충청남도 물 복지 향상을 위한 수도요금 현실화 추진방향 및 과제

충남발전연구원 물환경연구센터 김영일

2013. 7월호

美 출구전략에 따른 세계 경제 향방과 충남경제

포스코경영연구소 김영삼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부실화 가능성

목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조수희

목원대학교 부동산학과 정재호

2013. 8월호

충남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원체계 개선과제

충남발전연구원 이상준

화력발전에 의한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

충남발전연구원 이인희

2013. 9월호

충남 비정규직 실태와 정규직 전환

충남발전연구원 임병철

충남지역 청년층 노동시장 구조와 변화

충남발전연구원 김혜정

Re:um

(주)리움은 산업폐기물 및 제품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잔폐물(scrap)을 활용하여
소셜 아이디어 및 디자인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셜 아이디어 및 디자인제품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편리하고 안락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며 이익금의 일부는 아동과 노인 그리고 재활용을 위한 아이디어 제품 및 적정기술을 토대로한 디자인 제품을 공급하는 곳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혁

- 백석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홍익대학교/ 호서대학교 산학협력체결
- 공주대학교 열처리사업지원단/ 한서대학교 제품 표면디자인 센터 산학협력체결
- 중소벤처기업 디자인개발사업 선정업체
- 중소기업청 주관 디자인 설계지원사업 선정업체
- 제1회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선정업체(고용노동부)
- 소상공인진흥원 주최 제3회 소셜벤처 경연대회 우수상 수상
- ISO 9001 인증업체/ 벤처기업 등록/ 충남 테크비즈존 지정업체
-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업체(충청남도)
- 특허청 지식재산 재능 나눔 및 사회환원 우수기업 표창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수상 청년사회적기업 우수창업기업 우수상
- 제4회 액티브시니어 생활용품 생산 선정업체(유한킴벌리, 함께일하는재단)
- 2013 우수디자인(굿디자인)제품선정(산업통상자원부 선정/ KIDP)

사회공헌활동

NGO 자원활동(월정액 지원)

- 한국 해비타트
- 굿 네이비스/세이프 더 칠드런
- 유니세프 한국 위원회
- 아프리카, 아시아 난민 위원회
- 초록우산/월드비전/한국기아대책
- 희망제작소/사랑밭/국동방송

(예비)사회적기업 및 NGO 연계활동

- (재)함께일하는재단 : 필리핀-라오스 빈민 아동을 위한 자식칠판지원(2,000set)
- (주)제타랩-성남시 복지와 : 재활지원 대상자 책.결상 지원 및 자원봉사
- (주)트루빈스 : 빈민아동과 대학생을 위한 여름 위로캠프 지원



• Any_leg(다용도 테이블 다리모듈)
(특허, 상표출원)



• Reum adaptor(상표출원)



• 아네모네 USB(디자인, 상표출원)



• Toc-Toc OTG(디자인, 상표출원)

예비사회적기업 (주) 리움

대표자 : 이동훈

소재지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문암로 76 백석대학교 창업보육센터 317호

Tel : 041-555-2789 Fax : 041-550-2520/550-2789 E-mail : reumcompany@naver.com